



時計塔

SIGETOP



2017년 10월 20일 발행

서울大學教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4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韓承信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 OF NA 35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일시: 2018년 6월 21일(목)~24일 (일)

장소: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세계문화의 중심 뉴욕 맨하탄과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Marriott 호텔에서 제 35차 학술대회와 동창회가 2018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젊은 세대와 아직 일하고 계신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학술대회 일정을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오전에 골프아웃팅을 하고 저녁때 동기회 모임을 가지며

금요일에는

1. 골프,

2. Pre-convention Tour로
FD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

Vanderbilt Mansion Guided tour

또는

3. Korean Community Center 방문을 통한
문화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국내외 동문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한 승 신(76)



FDR Library and Museum



Vanderbilt Mansion
View of the Hudson River from the Vanderbilt Mansion



FDR Home



Korean Community Center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2017-2018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동부: 2017년 10월 9일 3시,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이만택(58) 채규철(59) 이희경(61) 한기현(63) 권정덕(64) 이명희(66) 서윤석(68)
 주광국(68) 강창홍(71) 광승용(71) 김정아(76) 한승신(76) 이선희(81) 서귀숙(84)
 강민중(91) 백승석(fund manager)



서부: 2017년 10월 9일 정오 12시,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이건일(68) 김성환(71) 김일영(71) 김대중(76) 최광휘(76)



Proxy:

김태웅(63) 김택수(63)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최영자(66) 신규호(68)
 신용계(68) 이성춘(70) 조세진(71) 이원택(71) 오용호(72) 장세권(01) 문대욱(73)
 심완섭(73) 전경배(75) 유영걸(76) 박일우(77) 백승원(79) 남명호(81) 신원석(88)
 남영재(94) 송경민(09)

1. 동, 서부 참석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승신 회장이 이사회 개회 선언함.

2. 지난 2016-2017, 제2차 대의원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3. 새롭게 임명된 임원진 소개 및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광승용(71) 동문- 송영두(62) 동문을 대신하여, Board of Trustees의 새임원으로
 로, 강민중(91) 및 조수정(03) 동문- Scholarship Committee의 새 임원으로 임명됨.

4. 2017-2018 회기 임원진에 대한 소개 및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President: 한승신(76)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임명되었음), President Elect: 김동
 훈(77), Vice President: 김대중(76), Treasurer: 주광국(68), Secretary: 강민중(91)

그 외, Finance 신용계(68), Scholarship 이선희(81), Fund Raising 최광휘(76),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6), Research & Fellowship 조세진(71),
 Green Project 이선규(89), Publication 서윤석(68), By Law 문대욱(73), Advisory &
 Exchange 이만택(58), Nominating 이건일(68), Silver Project 박일우(77), Office
 Management 서귀숙(84), Charity 최영자(66), Website 주광국(68), Convention Chair
 유영걸(76), Scientific Chair 남명호(81), Non-CME Chair 김명원(68) 등 위원장 또
 는 담당 임원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인준이 있었음.

5. 2017-2018 회기 중, 지난 7월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업무와 관련된 보고
 를 강민중(91) 총무가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서울의대 동창회 미주회원 주소록을 업데이트하여 서울 동창회에 전달함.
 이에 따른 "총동창회 주소록"이 출판되면, 150부는 서부 동문들을 위하여
 김성환 동문께 우송, 50부는 Virginia 지역 동문들을 위하여 서윤석 동문께
 우송, 200부는 뉴욕지역 동문들을 위해 학술대회장에서 배부 예정이며,
 예비로 50부를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 예정.

b. 젊은 동문들을 위한 (GP) 주소록 완성 및 Mass E-mail 전달체계 갖추
 (Web site Chair/Co-chair에 감사)을 보고.

c. 서울의대 미주 교육병원 근무 동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

6. 재무보고 주광국(68) 재무 보고:

a. Income (7/1/2017~10/1/2017): Transfer(\$90,200), Due & Donation, etc (\$56,075),
 EFT Transfer (\$5,629.27) -> Total (\$151,904.27)을 보고함.

b. Expense (\$38,981.44)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c. Current Balance (\$112,922.83)+이건일 회기(\$136,581.37)= Total (\$249,504.20)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7.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8) 위원장 보고:

2017년 9월 22일 현재 총시가(\$259,455)를 보고함. 또한 First quarterly
 payment(08/15/2017) \$5,629가 지급되었고, 약 10여 년간 이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8. 이만택(58)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위원장 보고:

- 김현(66, Newport Beach, CA 거주) 동문께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을 통하
 여 병리학교실 연구지원금으로 50만 달러(\$500,000)를 기부. 매년 5만 달러가 병
 리학 연구로 지불됨. 김현 동문은 병리학을 전공 하시고 특히 Hematopathology
 를 연구 하였습니다.

- 현재 모교 의과 대학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셔서 재단에서 매년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Fund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태(58) 노정옥 장학기금 (\$500,000)

김용재(66) 장학기금 (\$500,000)
 이만택(58) 이안나 장학기금 (\$100,000)
 김의신(66) 핵의학 교육기금 (\$250,000)
 이홍표(64) 심장-혈관학 연구 및 교육 기금 (\$300,000)
 유인경(59) 미생물학 교수 기금 (\$900,000)
 총 305만 달러 (\$3,050,000)

미주재단을 통하여 의학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모교에 송금된 기부액은
 10만불이며, 많은 동문들께서 모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 Publication Committee Report 서윤석(68) 편집위원장 보고:

a. 제1회 작품상 심사결정: 산문 (노영일), 시부문 (김병오), 농담골목 (이덕
 승) (*이 상의 후원금은 함춘공로상을 수여받은 편집위원님들의 물심양면
 Donation으로 수상이 진행되고 있음.)

b. 원고 보내실때: 투고를 하실때에 그동안 의사로서 경험한 꼭 발표하시고
 싶었던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으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70년 방준재 의견)

c. 대담시리즈: 인기가 좋은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시리즈가 박은경 편집위원
 이 만난 젊은 동문이야기와 함께 Senior 동문 대담도 Senior 동문 나수섭
 (50), 강수상(53) 동문부터 "시니어 대담 시리즈"도 함께 시작됨.

d. 지나치게 긴 원고는 줄여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그 원고는
 Website로 해결됨.

10. Charity Committee 보고:

a. Donation to COCO: \$2000.00 (Funded by Charity Fund 2016-2017)

b. 한승신(76) 동창회장으로부터,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헌금 지급
 제안이 들어옴: Hurricane Harvey: \$1,000, Hurricane Irma: \$1,000, Hurricane
 Maria: \$1,000 (총 \$3,000). 이의 지급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있음. 구체적인
 예산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Charity Committee 자체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번 일회에 한하여, Ge-
 neral Fund에서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50%는 Charity Committee
 자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어서, 투표를
 진행함. 그 결과 앞도적인 다수결에 의해, 이번 일회에 한하여, General
 Fund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11. Scholarship Committee 이선희(81) 위원장 보고:

a.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주지역 병원실습에 참여한,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st Panel Discussion & Student Q&A" Retreat에 대한 보고.

b. 총 19명의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생" 및 "김태웅 장학생"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6명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생 4명, 김태웅 장학생 2명)이
 "장학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고함. (송하림, 지예하, 김연
 수, 김무현, 김미현, 이소은 등 6명)

c.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승
 인이 이루어짐 (그 내용으로는, "Application form"에 Green card 와 US
 Citizen 여부를 묻는 항목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포 자녀 발굴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부모의 지난 해 income tax return을 포
 함시키는 것, 향후 서류 제출 방식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electronic
 application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됨)

12. Website Committee 주광국(68) 위원장 보고.

a. http:// snucmaaus.org or snucmaaus.com: 2016년 9월 15일 추석에 Launching

b. Associate Chair인 송경민(09) 동문: maintenance of Web and IT 부문에 지대
 한 공헌을 하고 있음. 또한, Website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전체 email로
 동시에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한 연락망 구성.

c. 동창회에 오는 새로운 소식을 바로 Update - 부고소식, 동문들의 활약상
 (전회택동문의 첨단의학 소개), Minnesota project 소개, 사는 이야기, 모교
 학생들의 미국 연수교육 및 기타 웹 페이지가 소개됨.

d. http:// snucmaaus.org or snucmaaus.com을 많이 click해 주실 것, 또한, email:
 snucmaaweb@gmail.com으로 지부 소식이나 수필 기행문 등을 많이 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음.

13. Convention Committee 한승신(76) 동창회장보고.

a. 2018 Convention 일자: 6월 21(목)~6월 24(일), 장소: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 (Teaneck, NJ), Room Rate: \$139.00 per day, Cutoff Date:
 June 1st, 2018 (Friday) 등, 현재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b. Convention Format 변경: CME/Non-CME meeting 시간을 금, 토(오전)에서
 토, 일(오전- 오후 2, 3시)로 변경/ General Session 신설 (CME/Non-CME 구
 분 없는): 약 2~3 시간/ Preconvention Tour: 금요일 FDR House/Museum 및
 Vanderbilt Mansion/ post-convention Tour: 일요일 New York City Tour/
 Golf: 목요일, 금요일/ Grand Banquet: 토요일 -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c. 젊은 세대 참여 증진(travel support를 통한)을 위해 Fund Raising -
 Convention Program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 기계 회사등의 광고 게재 허용
 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d. Convention Registration Fee: Regular Member: \$200 요청에 따른 재청 및 승
 인이 이루어짐. 또한 Senior Member: \$100로 할 것인가, 그리고 Senior
 Member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승신(76) 동
 창회장이 요청함. -> 이에 대해, "시니어 할인"이 학술대회 참석을 독려하
 는 데에 큰 유익이 되지 않으며, 선배로서 후배들과 함께 하는 학술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할인 혜택 없이 정규 등록비를 내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의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만장 일치로
 통과됨.)

14. Scientific Committee 계획에 대한 보고.

a. Opening Session: General Program for all participants: Theme: Aging-related
 conditions and management / Panel Discussion I: Healthcare disparity for
 Korean-American population / Panel Discussion II: Regenerative Medicine /
 Panel Discussion III: How to find the job you want to keep?

b. GP forum: After dinner banquet-How to find the first training program in US?

c. Program for Career advancement: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with case
 studies / Forum for Women in Medicine / Poster Competition and Award
 Ceremony

d. GP-CENTERED PROGRAM: How to find the first job you want Panel

우수작품상 심사를 마치면서

편집장 서윤석 (68)

제1회 우수작품수상자 소개

산문: 최고우수상: 노영일(68)
 우수상: 최순채(66), 안세현(68), 이수인(63),
 장려상: 강창욱(61), 서귀숙(84), 방준재(70), 김창남(69)
 시: 최고우수상: 김병오(69)
 우수상: 신영철(59), 정두현(61), Mrs. 정낙섭(60), 고 정인태(64),
 장려상: 김택수(63), 김태형(63)
 농담골목: 최고우수상: 이덕송(60), 장려상: 주광국(68), 김중권(69)
 젊은 동문대담시리즈: 우수상: 박영수(08), 강민중(91), 이태훈(02)

지난 1년 3개월간 시계탑에 실린 여러분들의 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규정상 편집위원님들의 작품과 여행문이나 신문기사에 해당되는 글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산문, 시, 농담골목 세 장르로 구분하여 12명의 편집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9명의 편집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산문부문에서 “명의”, “이방인”을 쓴 노영일(68)동문이 최고우수상을 받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술을 베풀던 의사로서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묘사한 감동적인 글들이었습니다. 시 부문에서는 “새의 집”을 발표한 Virginia의 김병오(69)동문이 최고 우수상을 받습니다. 부부께서 학창시절부터 문예반에서 시를 공부하더니 새와 새집과 화자의 관계를 은유(Metaphor)로 표현하시어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창작생활을 이어가시기 기대합니다. 농담골목에서는 이덕송(60)의 (양콜), 김중권(69)의(삼국지조조호환인), 주광국(68)의 (전문가와 비전문가) 세 부문에서 선택했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든 이 농담골목의 심사에서는 원본이나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유모어로 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하신 이덕송(60)동문이 최고 우수상을 받으시며 다른 두 분도 상을 받으십니다. 심사규정의 약속으로 노용면(55) 편집위원님의 뛰어난 농담골목 작품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들이 보내주신 작품중에서 Black Diamond, Lecanto, Florida에 사시는 Mrs. 정낙섭(60)의 시, “해바라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창작의 기본이 되는 조건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평범한 단어로 체계적 시를 쓰신 것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골프 챔피언이자 노익장이신 최순채(66)동문의 “Sky Diving”, 또 본국 ‘시문학’에 등단하신 정두현(61)시인의 “응축”, 종교활동가이신 안세현(68)동문이 쓴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김창남(69) 동문님의 산문, 등단 수필가이자 영문 소설가(춘원 이광수 전문가)이신 강창욱(61)작가님의 글, 이수인(63)님의 글인 문동이 풍경, 미주의대학회참석 후 쓰신 서귀숙(84)교수님의 글, 방준재(70)(한국일보 컬럼리스트) 동문님의 글들이 모두 상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영문시를 섬세하게 발표해오신 신영철(59) 동문께서 우수상을 받으십니다. 이번 심사기간중 특이할 것은 말기의 병상에 누워서 고통속에서도 시를 쓰시어 유고작을 보내오신 조지아의 고 정인태(64) 동문님의 작품은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이분은 우수상을 받으십니다. 사모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의 소중한 예술작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품속에서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고향땅을 이제 천국에서 찾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 이외도 시를 보내오신 김태형(63), 김택수(63) 두 분도 상을 받으십니다. 박은경 편집위원님이 시작한 젊은 동문들과의 만남시리즈에 참여하신 박영수(08), 강민중(91), 이태훈(02) 세 동문들도 상을 받으십니다.

그동안 이 작품상 결정의 여러과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김정아(76)편집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 반 전 편집위원회가 수상한 미주 함춘공로상금을 기금으로 내 놓으신 여러분들, 이원택(71) 전 편집장님을 비롯하여 노용면, 김병석, 이희경, 허선행, 김명원, 서량, 나두섭, 서인석, 이선희, 김정아, 박은경 여러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곧 이어서 2회 작품상 모집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그 촉매가 되어 시계탑이 더 알찬 동창신문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영예의 수상을 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상장과 부상이 곧 이달 중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2017년 10월 9일 , 한글의 날에...

제1회 시계탑 우수 작품상 - 수상 소감 -

농담골목 부문 최고우수상: 이덕송(60)



재치가 넘치는 유타나 유머는 우리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시계탑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담골목'에 발을 디딘지도 어언 10여년이 지난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선 후배 동문들께서 각양각색의 유머로 농담골목을 수 놓아 주셨는데 저의 농담 '양콜'을 최우수 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계탑이 존재하는 한 농담골목 대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보다 재미있고 유익이 되는 유머를 연구 개발해서 비좁았던 골목이 활트여져 우리 동문들이 편히 쉴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에게 주실 상금은 scholarship fund로 환원해 주심으로 후배양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계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문 부문 최고우수상: 노영일(68)



상을 타니 기쁘다. 어렸을적에는 이런저런 상을 종종 받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욱이 미국에 이민 와서는 상을 타본 기억이 없다. 글을 써서 상을 타니 기쁘다. 어렸을적 여름방학때면 숙제였던 일기를 매일 미루다가 개학하기 하루전에 한달치를 몰아 쓰러니 무엇을 쓸지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연말에도 카드를 쓰는데 무슨 말을 쓸지 생각이 나지않아 미적대고 있다가 아내한테 핀잔을 받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글재주가 없는가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글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보니 그간 살며 보고 느낀것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충동을 가끔 느꼈다. 수필에는 형식도 없고 소재의 제한도 없고 마음 내키는대로 붓 나가는 대로 써내려가면 된다는 말을 어디서 좇어 듣고는 용기가 났다. 마치 다방에 앉아 친구들과 잡담이나 무용담을 하는것 처럼 쓰면 된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일생은 사실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이다. 돌이켜 보면 군복무시절, 무의촌 파견군무 시절은 내 일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본래도를 이탈한 시기였다. 속도전과도 같은 출세가도에서 몇년을 하승생활을 하며 “씩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의술면에서는 몇년 손해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의사로서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하찮은 경험담이지만 나의 글을 읽고 공감을 해주는 동료들이 있다니 기쁘다.

시 부문 최고우수상: 김병오(69)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인 몇이 편집위원회에 있어 다분히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이래도 되나 싶어 저의 시를 다시 들여다 보니 역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집착과 해방의 차이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시 었습니다. 의식의 전환을 통해 체념과 지혜를 얻는 기쁨을 형상화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지요. 마주 보지만 말고 멀리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자고 하면 되는 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결핍에 허덕입니다. 한편 文學에 빠져드는 토양이 되기도 하지요. 선함을 하신 분들의 격려로 받아 들이고 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시계탑의 명성과 긍지를 지켜 가야지요. 감사합니다

- discussion / First training program Experience of the recent NRMP matching / Ph.D. track for academic career? / What can SNUCMAA US Website do for you?
- e. Networking: Friday day evening - Get to know dinner/snack at the GP headquarters / Saturday evening After banquet 등등의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이견 없이 승인됨.
- 15. GP Committee 활동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a.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GP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주소록: 118명 -> 2017년 주소록: 128명으로 증가됨)
 - b. 재정: Starting budget in 2016: \$1,649.07, Expenses in 2016: \$476.45, Carry over from 2016: \$1,212.62
 - c. 향후 추진 계획: GP member 현황 분석(Per graduation year, Immigration and professional status, Geographic location, Working place/institution)을 통해 맞춤형 사업 (예: Encouraging and sponsoring small, local (regional) GP events) 개발 예정.
 - d. "자랑스런 Mentor상" 제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16번 항목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함)
- 16. GP Committee "자랑스런 Mentor 상"
 - a. 취지: 후배들 미주 진로개척에 도움이 된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고, 후배들을 이끌어 갈 위치에 있는 동문들의 Mentor로서의 노력 고무하며, 미주 동창회 회원수의 증가와 동창회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b. 자랑스런 Mentor상 수상자 추천 광고. (시계탑)
 - c. 신청 접수 (Need at least one nominator and one supporter): 1 page statement by the nominator가 제시되어야 함.

- d. 수상자: 1 년에 한명
- e. 대상자 선정: GP committee 안에 선정위원회 결성, 그 위원회에서 결정.
- f.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SNUCMAA member only" or "Any Physicians or Scientist"를 포함하여, 논의가 진행됨, 동문내로 국한하지 말고, "상의 취지에 맞는 Any Physicians or Scientist"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재정 및 승인이 이루어짐.
- g. 수상금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으로는 \$1,000의 의견이 제시, 이에 대해 재정 및 승인이 이루어짐.
- h. 심사기준 (Nominee의 CV와 Nominator/ Supporter의 supporting letter를 통한 심사): (가) Counselling and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a mentee to find his/her own path to person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success. (나) Sponsor and advocate for the mentee in academic or professional community. (다) Involves the mentee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ublication, conferences or other venues that can share and communicate intellectual or professional information. (라) Provide support in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matters. (마) Successful role model by their colleagues / Long term commitment to mentoring.
- i. "자랑스런 Mentor상" 관련하여, 이번에 발간되는 시계탑에 공고하기로 결정됨.
- 17. 제1차 대의원 회의 일정이 정해짐.
 - 동부: Jan. 6th, 2018 at 3:00 PM, Double Tree Hotel
 - 서부: Jan. 6th, 2018 at 12:00 PM, JJ Grand Hotel
 제1차 대의원 회의 때에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장학생 시상식 예정.

Prepared by 총무 강민중 (91)

버지니아 지부 소식

지난 7월 24일 버지니아 지부를 방문한 동문들의 환영 모임이 Vienna, Virginia에서 있었다. 인사차 방문한 동문들은 윤지완(03)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내분비내과 교수와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으로 Clerkship 온 졸업반 학생들이 한지혜 (Pediatric Emergency), 양한별 (Trauma, Surgery related Department), 장서운 (Pediatric Cardiology) 들이다.



김진수(66, Virginia 서울의대동창회장), 유우영(68, Pathology, Columbus, Georgia) 서운석(68, 시계탑 편집장), 남명호(81, Pathology, Director Inova Health System Laboratory, Fairfax, VA), 장세권(01, Hematology/Oncology, Director Melanoma and Cutaneous Oncology Therapeutics and Research, Inova Schar Cancer Institute, Associate Professor of Medicine,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Fairfax, Virginia)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젊은 후배들의 앞날을 위하여 참가가 될 좋은 말씀들을 나누었다. 이날 남명호, 장세권 두 동문들 수고를 많이 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워싱턴 DC, US Military Uniformed Medical Center로 여름 Clerkship을 온 모교 본과 4학년 학생들과 함께 Fairfax, Virginia에 위치한 Sea Pearl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선후배간의 우의를 나누었다.

참석한 사람은 아직도 이 병원에서 Active 하시며 후배들의 일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식(57) 대선배님과 주광국(68) 서운석(68) 남명호(81) 장세권(01) 송경민(2008-9) 그리고 근래에 Texas에서 새로 이사온 Medical Oncology and Hematology 전문의 강하나(08) 동문이며 이날 인사를 온 모교 본과 4학년 의사 학생은 지성인(정신과 지망 Yale 대학병원연수 후)과 박제훈(정형외과 지망 Boston MGH 연수 후) 두 사람이다. - 기록 편집인



전희택(64) 동문의 KTV 의학대담 Series

지난 3년간 하고 있던 TVK Medical Talk show를 금년 6월말에 끝내고 그중 21편을 YouTube에 올렸습니다. 동문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comment 를 집어넣어 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전희택 박사의 첨단의학 소개”이고 사계의 권위자들을 이르는 University에서 초청하여 30분 대담하는 프로그램이고, 알기쉬운 대화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community education program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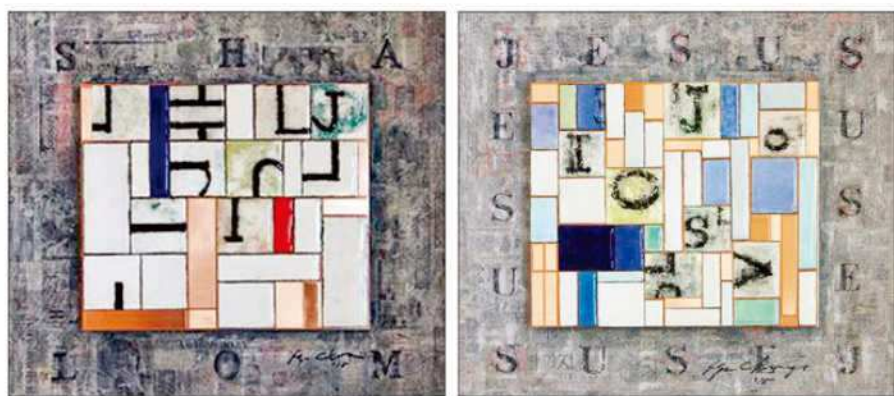
YouTube search는 Edward Jeon으로 해주시고 프로그램의 3분의 1은 대화가 영어입니다. - 전희택(64)드림 - email: edhjeon@yahoo.com

지상 쟁리니: 조현 (70, 조남현 부인)



“삶에 시련은 제게 신앙이라는 버팀목과 기회라는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면 중년의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나가기 위해 신앙을 택했고, 오로지 주기도문을 붙들고 매달리다 보니 당당했던 삶의 뒤편에서 다시금 작가로서 더없이 영광스런 기회가 보석처럼 주어졌다. 속앓이를 할 때면 기도를 하며 맘을 다스리고, 이 시간을 통해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성령의 발견 순간’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조현 작가. 그녀의 작품은 삶에 주어진 혹독한 시련을 차곡차곡 거둬주시는 하나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뿌리 깊은 신앙심’에 바탕 한다. 지면에 소개한 작품 제목의 ‘ILJ’는 ‘I Love Jesus’, 숫자 15는 작품을 그린 2015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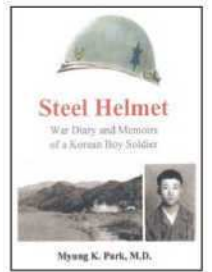
작가는 흥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 버팔로 주립대와 버지니아 올드도미니언 대학, 노퍽 주립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2002년 페닌슐라미술센터에서 주최한 국제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며 초청 개인전을 가졌다. 이 외에도 다수의 특별 초대전에 참가했다. 또 2010년에는 전세계에서 수천명의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받아 까다로운 심사를 한 뒤 베스트작가를 뽑는 권위 있는 단체 ‘아트 버즈’가 선정한 작가 120인에 유일한 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한미 현대미술협회가 주관한 뉴욕 작품전에도 초대받아 참가했다.



<작품설명> 구리, 에나멜, 우드에 혼합재료를 사용한 남화 기법

박명근(60) 동문 자서전 Steel Helmet 출간

박명근(60) 동문이 Amazon.com (Create Space)을 통해 자서전 “Steel Helmet: War Diary and Memoirs of a Korean Boy Soldier” 영어로 출판했다. 이 책의 전신으로는 한국의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소년병의 일기”가 있으며 이 영문으로 된 책은, 후손을 비롯하여, 한국인 2세나 외국인들을 위해 출판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Introduction의 section이 있다. 박 동문은 1962년 도미하여 Texas 의과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다 은퇴했고, 제6회 함춘대상 수상한 바 있다.



This is a life story of a North Korean boy who, as a sixteen-year-old, was swept into the turmoil of the Korean War (1950-1953). During the war, he was a Private First Class wearing a steel helmet with a blue star (as shown in the front cover), the ensign of the Sixth Infantry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army. The War Diary of the boy soldier while serving at the war front is the backbone of the story that includes the events before and after a gunshot wound in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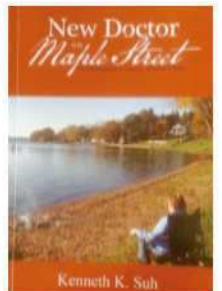
His life experiences of growing up under Japanese rule and later under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precede the war diary. Following discharge from the army as a wounded veteran and the personal history in the diary, life experiences in South Korea as a refugee teenager without parents and ensuing struggles for survival and academic success are described.

The author graduated from the prestigious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s the Presidential Gold Medalist and came to the United States for advanced medical training. He eventually became a world-renowned physician and chief of pediatric cardiology at a major medical school. He published a number of research papers and wrote three popular books in his field, including “How to Read Pediatric ECGs,” “Park’s Pediatric Cardiology for Practitioners” and “Park’s the Pediatric Cardiology Handbook.” Some editions of his books are translated into Spanish, Italian, German, Polish, Chinese, and Portuguese.

서경석(63) 동문 두번째 서적 출간 The New Doctor on Maple Street

Dr. Suh는 년전에 그의 첫 작품(단편/에세이)집 “Walking in the DMZ”를 영문으로 펴낸적이 있었고, 그때 내가 그 소개를 간단히 역시 영문으로 했었다.

이곳 미국서의 우리를 의사모두의 애로(?) 인생역정: 큰(?)꿈 들로 엉뚱한 곳에 정착을 하며, 풍수들이 이어가며 고군분투 하던 젊은 이력, 맥맥히 이어가던 눈물겨운 우리 심지, 그러며 우리 주변에 아련히 씩씩히 깔린 지우지 못할 정서, 물씬 물씬 애뜻한 고향/고국에 향한 nostalgia, ...그위에 overlap 되는 현실/피치못할 갈등과 감내..., 그렇게 살아오고 관찰해온 대로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썼더니, 그의 두번째 책이 8월에 발간됐다.



더 원숙한 펴냄일 터 인즉, ...역시 so fluent and 'easy does' spread again in English, 계속되는 '우리들의 얘기'는, ...평생 우리가 urban career로 살았건/rural 경력을 지냈건, 그의 'Country Doctor' 로서의 정서 물씬한 인생역정, 곧 '우리들 모두'의 슬프도록 아련한 향수를 곁들인 우리세대의 과거 수난의 얘기와 예 살며 의사로 지내온 얘기가 소상히 오가며 가슴을 처운다.

“ ‘Sisyphus’ Retires”, 그 piece를 읽으면서는, 가슴이 짠하구 멍한 ‘나/우리’ 스스로를 저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날 석양에 같이 앉아서 본다. 외진 ‘Country Doctor’ 인생, 어쩔수 없는 이민자의 고통과 어찌보면 천직으로 여겼던 피할수 없는 직업적 심신적 상흔, unavoidably frustrated and exhausted professional trauma, physically and mentally alike, ...평생을 ‘차고-끼고’ 살아온 a little ‘Torture machine’/우리들의 당시 ‘Beeper’를, ...은퇴 하던날 아내와 호숫가 석양에 앉아 물에 던져버리는 그의 한 ‘Sisyphean Finale’. 여기에서 우리 비죽이 bittersweet 미소를 짓는다.

(내사 곧, Denver 내 딸네를 방문할 참. 그런때 마다 우리는 our ‘goodies’/the ‘Cannabis’ 를 기꺼이 함께 시도하고 즐기곤 한다.) - 이흥빈 (63 Classmate)

A Sisyphus Retires

In the evening of his retirement, Dick and Amy sat on the dock. Looking at the brilliant sunset, Dick dropped his beeper into the lake. They heard the splashing sound but no beep. The beeper had been a weapon of torture for Dick for many decades, but now it was gone. suddenly he felt as though a ton of weight on his shoulders was gone, and as if he was now an unburdened Sisyphus, who perpetually had to push a boulder up a mountaintop only to see it slide back down.



Dick’s senior physician friends used to jock about their life after retirement. The most popular job they’d take, even in their next life, was as a greeter at Walmart: they wouldn’t have any paperwork to do, and they wouldn’t have to worry about malpractice. But the year before, they all were shocked when a cardiologist went to work, not at Walmart but in a factory, right after his retirement. Many thought he was a plant physician, but he was a forklift operator. He could not possibly stop doing the same old thing - a Sisyphean task of repetitive daily routines.

He was now a new-generation Sisyphus, using machines to push things up but only from 7:00 a.m. to 3:00 p.m., a perfect cooling-down period for a country doctor. He was also on autopilot without having to think about anything like overhead, malpractice, or preauthorizations for office procedures. But it was obvious that having been a country doctor so long had been traumatic, especially for his brain, an occupational hazard similar to head injuries to football players.

As the twilight was fading, Dick vaguely thought he should cut down on that black liquid poison called coffee and enjoy a high-quality, nonstop nap in the hammock every day. He also decided to keep his worn-out black bag with his tools of the trade in it, and a microscope, as mementos for his grandkids.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전걸(49) 동문 별세

대전배남 정전걸(49) 선생님께서 별세하시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사모님께서도 곧 이어서 돌아가시어 두 분의 장례식이 함께 지난 7월 21일 거행되었습니다.

정진묵(57) 동문 별세

Lima Ohio에서 은퇴 후 올랜도에서 살다가(1995부터 2015까지) 테네시에 거주 하시던 정진묵(57, 이비인후과 전문의) 동문이 지병으로 10월 15일 타계하였다. 유가족으로 이화여대 약대를 나온 부인 이학순 여사와 4녀와 사위 등, 수 많은 손자손녀 증손자가 있다.

전라중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고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있다가 도미하여 University Wisconsin에서 이비인후과 교육을 마치고 1967년부터 Lima Ohio에서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전문의로 일했다.

정동문은 초창기 한국 의사 이민사회의 개척자이며 한인사회의 리더이며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등 국내외 이비인후과 발전에 기여한바가 크다. 취미는 한시연구, 한문 서예로서 작품을 북경 국제 전시회에도 출품했다. 장례는 17일 본인의 요청으로 검소하게 가족장으로 진행된다.



Dr. Chin Mook Chung, a 1957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otolaryngologist (ENT), died October 15, 2017 in Johnson City, TN after a brief illness.

Dr. Chung was born on January 3, 1932 in Gyeongsang Nam Do, Yangsan, South Korea. He was raised and educated in Seoul, attending Kyung Bok High School. He was an avid athlete and was captain of the Korean national volleyball team in his 20s. Along with many of his SNU classmates, Dr. Chung served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Navy). His medical education was interrupted by the war and after graduation, he was among the first wave of post-war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Dr. Chung arrived in Knoxville, Tennessee for graduate medical training in 1957. After his internship, he went on to complete an ENT residenc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n Madison.

After fellowship training in Montreal, Canada and short periods of clinical practice in Racine, Wisconsin and Dayton, Ohio, Dr. Chung established a solo practice of otolaryngology in Lima, Ohio in 1967. He was a skilled surgeon specializing in microsurgery of the ear. He also had an extensive general ENT practice and cared for countless patients over 28 years, performing over 10, 000 tonsillectomies without a single case of hemorrhage. It was in Lima that he and his wife, Hak Soon Lee Chung, raised their four daughters. As the eldest son, he was later responsible for bringing his mother and three siblings and their families to the U.S. in the 1970s.

After retirement, Dr. and Mrs. Chung moved to Windermere, Florida where they golfed regularly and hosted many friends and family members over a twenty-year period. Later in life, he developed an intense interest in Chinese calligraphy and poetry. His other interests included reading Japanese literature and history, and ballroom dancing with his wife.

Dr. Chung is survived by his wife of 60 years, Hak Soon Lee Chung and four daughters, Sue (Johnson City, TN), Carol (Columbus, OH), Joyce (Washington, DC) and Catherine (Johnson City, TN), ten grandchildren and one great grandson.

정구영(57) 동문 별세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11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Cardiology 전공의로 필라델피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 후 Florida에 거주하시던 정구영 동문께서 지난 7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Dear Lisa Chung,

I heard last month the sad news that your beloved husband, Edward has passed away from Dr. Jay Jung. How sad you might has been beyond my imagination. I sincerely express my heartfelt condolence to you.



I was not aware that Edward and you came to the US in 1958, the same year which I also came to the US. Indeed we have lived for nearly 6 decades in this country. I believe that we had a wonderful life in this country. You had a wonderful family and you have been travel this journey with Edward, the love of your life.

You may not see or read these articles- Who's Who in America, 2000 and the Centennial History of Korean-American Physicians in America.

Who's who in America described Edward as "cardiologist, educator and author" He did published 90 medical textbooks" which I have at first time noticed! The Centennial History of Korean-American Physician in America" wrote " Edward as considered one of the world's top cardiologists!" In addition, Jefferson University has established the Edward K. Chung distinguished lectureship in cardiovascular diseases in recognition of his myriad accomplishment in the field. Indeed he did live his life fully.

I know that Edward is now resting comfortably in Heaven. I know with certainty that you will someday join him wherever he is.

With my sincere condolence,
- Jhong Sik Rhim (57)

강영섭(57) 동문 별세

버지니아에서 거주하시던 강영섭(57, plastic surgery) 동문께서 지난 2월 20일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미망인께서 전해 오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범렬(81) 동문의 모친상

박범렬 동문의 모친인 김수경 권사께서 9월 17일 영면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최준영 崔俊榮 박사 영전에



뜻밖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며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준영 박사! 미안 합니다. 그토록 힘든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들 나이에 누구나 치루는 가벼운 질병으로 조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1962년 체능시험을 거쳐 우리가 청량리 의예과에 입학하여 운명처럼 함께 지내온 세월이 55년도 더 지났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최박사를 우리는 학년 대표로 선출하였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박사는 훌륭하고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했지요. 최박사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었음은 물론 보통사람은 업두도 못내는 활발한 과의활동도 했지요. 특히 미술반에서는 오랫동안 熱愛를 하시어 美貌이신 아내를 만나셨지요.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졸업 후 푸른 모자를 쓰시고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공군 대위였지요. 항상 활짝 웃는 美男인 최박사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도 우리 학년은 일 년 더 무의촌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즉 67/103명은 1972년경에 미국으로 왔지요. 디트로이트에서 인턴생활을 끝내고 나서 아마도 1974년 봄이었을 것입니다. 최박사와 본인이 미쉬간(FLEX)의사면허시험을 같이 치르던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점심시간에 싸가지고간 김밥을 잔디밭에서 같이 나누어 먹던 생각이 납니다. 아! 그것이 옛그제 같은데 벌써 43년 전이네요. 그후 Residency를 마치고 최박사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가정문제 상담 정신과 의사로 근래까지 그곳 미쉬간에서 仁術을 베푸시었지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납니다. 최박사는 1993년 Michigan에서 열렸던 국내의 동기들의 모임인 22회 동기(68년 졸업)의 25주년 동창회 행사에서 Chairman을 맡아서 주관하셨지요. 그때 1만불의 黑字를 기록하고 우리 동기 기금을 확고히 하셨지요. 저는 최박사의 그런 훌륭했던 Leadership을 알고 있습니다. 최박사는 화가이면서도 골프장에서 그야말로 맛있게 골프를 즐기던 사람입니다. 첫홀에서 Ping 드라버로 Tee Off 하던 최박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974년 본인은 미쉬간을 떠나서 살게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후 연락도 서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사느라고 쫓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고 힘들었지요. 그리고 시간의 강물은 너무도 빨리도 흘렀습니다. 어느덧 모두가 하얀 백발을 하고 눈섭도 山神靈처럼 달고 바람이 부는 높은 언덕위에 올라왔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유리문 앞에서 모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 몇 명은 그 문을 지나 벌써 떠나갔습니다. 최박사도 이렇게 그들을 따라 훌쩍 가버렸군요. 최박사는 늘 부족한 본인을 고등학교가 한 해 먼저라고 형이라고 부르며 깎듯이 예의를 지켜주셨지요.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하여 부인께, 아드님과 따님들 그리고 가족여러분들께 머리를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肉身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으시고 훌훌 떠나신 귀한 靈魂이시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便安하세요. 그리운 최준영 兄! 즐시 '민들레꽃'을 바칩니다.

뽕히고 잘려도 / 다시 사는 민들레꽃 / 곳곳한 목줄기에 / 꽃잎도 고운
밤새 내린 이슬 먹고 / 산삼(山蔘)도 장미꽃도 아닌 것이 /
바위 틈에서 숨쉬는 / 너 착한 민들레야
미쉬간 대지(大地)에 흠린/너의 진한 땀 방울 / 흰 옷 입은 씨앗으로 /
노랗게 삼천리(三千里) 물들이더니
새털보다 가볍게 / 바람에 불려와 / 아메리카 대륙(大陸)에도 뿌리 내린 /
민들레야 민들레야

Joon Y. Choi, M.D. March 14, 1944 ~ July 9, 2017

Dr. Joon Young Choi of West Bloomfield, MI died peacefully at home surrounded by his loving family on July 9, 2017. He was 73. Dr. Choi was an adolescent, family, and marital psychiatrist for more than 40 years.

He was a devoted husband to Kyung Eun for 46 years. A loving father to three children: Betty (husband Erling Ho); Susan; Ronnie (his wife Meryl). He was a cherished grandfather to Ethan and Sarah Ho.

Dr. Choi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where he graduated from Kyunggi High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College of Medicine. Dr. Choi served proudly in the South Korean Air Force earning the rank of Captain (Daewi) while providing medical transport services transferring patients from the battlefield back to friendly territory during the Vietnam War.

Dr. Choi enjoyed playing golf, taking road trips with his family, and gardening in his spare time. He was an "artist at heart" and created many beautiful drawings and oil paintings of captivating landscapes, wild animals, and significant persons.

Visitation will be held on Friday, July 21st from 5pm until time of Funeral Service at 7pm at McCabe Funeral Home, 31950 W. 12 Mile Rd., Farmington Hills, MI.

북미주동창회 신설 Web Site 안내

snuccmaaus.org 또는 snucmaaus.com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Web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가 관할하는 Web Site가 Launching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글들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Vice Chair 주광국(68)/남명호(81), 현 회장, 현 시계답편집장, 조의열(66) 사진 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나수섭(50) 선배님

1. 나는 1969년 1월 서울에서 하던 의과대학 내과교수직을 내 던지고 미국의 Residency 1년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한국인 이민자들을 동기면으로 관찰해 볼때 두개의 부류로 나누어 보는데 첫째 부류는, 'Life could get better'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고 둘째 부류는 'Life couldn't be worse'라고 결심하여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우리 가족은 전자 보다는 후자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가족은 \$200를 가지고 왔습니다.

2. 나의 6촌 형님 형수의 동생의 소개로 서울대 사대부고 제7회 동창이고 그 해에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던 오혜현 양을 만나게 되어 말하자면 중매결혼이 멋있게 성사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온 중에도 아이들(2남 1



강수상(53) 선배님

1. 1963년 IAEA의 fellowship을 받고 University of Chicago에 왔습니다. 그 때는 정부에서 환금이 되지 않았고 100불의 현금이 생겨 올 때 가져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교와 자매관계로 있는 Minnesota 대학에서 radiation biophysics를 공부하고 학교로 돌아갔으나 젊은 전임강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김재남 동문과 저는 다시 이 곳으로 오게 되어 자리가 잡혀 가고 있었는데 73년에 한국 사정으로 귀국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꾸어 모교 교직을 사직하고 여기에 정착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게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2. 그 당시 하는 분야가 비슷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자주 만나게 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3.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문은 물론이고 음성이나 눈 모습으로 사람을 가려내는 세상이지만 내 자신이 70억 가운데서 구별 될만한 외형적 혹은 내적 특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선현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아 자유롭게 생각하고 즐기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고맙고 나도 그 분들의 공헌을 키워나가는 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염원을 가진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4. 교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할 말이 많지만 두 가지로 줄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장균(E. coli)의 조절 유전자(repressor) 연구. 유전자 변이(mutation)가 일어나면 정상 형태의 세균이 점액질 세균으로 변하는데 그 빈도가 정상 세균의 경우 7천만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post-doc fellow로 있던 교실의 주제 연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 유사체인 PFP(p-fluorophenylalanine)가 단백질 합성에 포함될 경우 모든 정상균이 점액균으로

변이 주관하여 우리의 금혼식을 벌터 모어의 Martin's West Hall에서 성대히 마련해 주었을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3. 나는 자의 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평양에서 자랐는데 유년 시절에는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여 갈때 일본군에 징집됨을 피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공군군외관 복무가 끝난 뒤에 서울의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는데 혈액응고학 임상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혈액학에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Oncology Fellowship까지 하였고 그 이후로는 private practitioner로 헌신 하였습니다.

5. 베푸는 삶 안에서 인내와 겸손을 함양하는 동시에 인생을 즐길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미련하게도 46세의 나이에 시작한 Full time solo Practice를 하면서 25년 이상의 연소자들과 1:1의 에누리없는 경쟁을 해가며 어렵기로 이름난 내과 Board를 기어이 획득하려고 7전 8기의 노력을 하던 동안은 정말 대단히 힘 들었습니다.

6. 나는 1945년 4월에 평양에서 시작하여 월남후 서울 의대를 다녔는데 그 당시는 Soviet Union을 조국이라고 떠들던 반민족적 공산당의 음모와 교란으로 조국이 격랑의 와중에 있을때였으니 나에게 즐거운 추억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나는것 한가지를 쓴다면 우리에게 졸업 강의를 하신 김시창 외과교수(남북 당한 교수들 중의 한 분)가 문화민족이라면 10만명에 한 사람은 Nobel 상을 수상할 수 있는것

이니 분발 노력하라고 하시던 일입니다.

7.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법조계에 진출하여 양심적인 훌륭한 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8. 나는 만 40세에 국민학교 2, 1학년과 세살반의 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무엇 보다는 미국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식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한 점을 크게 뉘우칩니다. 아이들에게는 강요하기 보다는 애써서 칭찬해 주는것이 필요합니다.

9. 운동에는 능한것이 없었으나 젊어서는 장거리 뛰기는 잘하는 편이었고 늦게 배운 golf는 많이 좋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조용히 classic music 감상을 즐기며 자연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 합니다.

일생 동안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해 역점을 둔것은 규칙적 생활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사는것 입니다.

10. 근래의 회장들이 시대 감각을 잘 파악하고 성의껏 봉사함을 치하 합니다. 앞으로 우리 2세대와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동창회 발전과 서울의 대의 위상을 계속 빛내기를 바랍니다.

한 몇 명은 이미 대학원에 합격하여 학업 종료 때 까지 병역의무 연기가 가능한데도 이것이 무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공식 발표가 없이 채용된 조교가 그 대신 병역 의무 보류가 허용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 의대 역사에는 본 교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졸업을 한 반도 있었다는 보고를 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7회 졸업생 입니다.

7. 양자역학자 Erwin Schrodinger가 파동 방정식을 정립하고 나서 생명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실이 설문자의 이 질문을 읽으며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명의 물리학적 그리고 화학적 문제 특히 최고의 지능을 가진 인간 생명의 문제를 거기에 더 하여 그 생명체에 생긴 질병과 그 치유를 공부하는 일을 생업으로 일찍이 정한 것을 더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문에 직접 대답을 하기엔 지금의 나와 다시 태어나는 나 사이의 시간이 문제가 되네요.

8. 소개할만한 뚜렷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유일하고 단 한 번 가지는 인생의 특권을 조심스럽게 풀어 나가는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잘 갖추어 주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I have found the best way to give advice your children is to find out what they want and then advise them to do it" 라고 한 Truman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9. 최고의 사치는 자기들과 CSO 오케스트라 홀에 가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러 수요일에 골프 치러 가는 것 아내와 가끔 숲을 산책하는 것 정도이고 시간이 나면 독서도 하고 있어요.

10. 걱정 했는데 세대교체가 되니까 참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가 노화 되면서 활력을 잃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여기에 적절한 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에서 각 지역의 Golden Club이 잘 되고 지역 동창회 운영에 큰 역할을 노년층이 하고 있는 성과가 미주 의대 동창회를 살리는 데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 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 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 하여 주세요.
- 10.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로 100% 변이가 되며 이렇게 변한 전액균을 다시 PFP가 포함 안 된 배지로 옮겨 주면 전액균은 100% 본래의 형태로 정상화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조절 유전자(repressor)가 RNA가 아니고 단백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이며 거기에 얽힌 그 후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로 엮여 본 20년"이란 제목으로 시계탑에도 게재한 호모시테인 연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상인의 혈중량을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20만에 하나가 있는 유전병homocystinuria 환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관계로 불과 20편 정도의 논문이 출판된 조용한 분야가 이 방법이 소개 되면서 심장학 신경학 신장학 혈액학 병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일을 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걸려 85년 JCI에 우리의 관상동맥증과의 관계가 발표된 후 유사한 논문이 여러 곳에서 수 없이 나왔습니다. 빈도가 5% 이상인 열성 유전자인 TMTHFR이란 변이 유전자의 발견 그리고 한편 엽산과 B12의 결핍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낮은 정상치의 경우에서 까지 혈중 호모시테인 값의 상승이 관찰된 비유전적 현상은 가장 주목을 받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혈액의 B 비타민 값의 저하로 오는 혈액 호모시테인 상승이 B 비타민 투여로 정상화 된다는 데 근거하여 동맥증 치료에 비타민 투여가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조건은 먼저 동맥증 병인에 B 비타민의 관여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동맥증의 병인에는 여

러 요소가 있고 호모시테인은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자기의 正體性 品性 成熟性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에는 identity 뿐만 아니라 진실성 청렴성 같은 integrity의 문제도 포함 되어야 할 것 같고 품성은 격조 있고 현실성에 결여가 생기는 경우라도 세상을 보는 눈에 초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점 성숙성은 순진하게 지나간 그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것 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지하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화학을 배운 한 선생님과 대학원에서 지도해 주신 한 교수님과과의 관계는 각별 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지금도 그 분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6. 9월 학년제를 다시 4월 학년제로 바꾸기 전에 우리는 8개월에 본과 1학년을 끝내고 6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해에 한국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전시 연합대학 교사에서 서울에서 피난 온 세브란스 의대(지금의 연세대)와 서울 여의대(지금의 고려대) 이화대와 함께 강의를 받았습니다. 53년 3월 28일에 영도에 있는 염선 국민교에서 총 503명이 졸업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남자 학생에게는 장교 임명장과 군복을 교육 종료 이전에 지급하고는 1주일 후에 군의학교로 입교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때 본인을 포함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임경빈 (99) 동문

본 박은경 편집위원은 Iowa City, IA에 위치한 아이오와 대학병원(Univ. of Iowa Hospitals and Clinics, UIHC) 핵 의학과에서 지난 7월부터 레지던시 수련을 시작하게 된 인연으로 이번 호의 주인공인 임경빈 동문(99)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Dr. 임은 모교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도미하여, UIHC의 내과-정신과 통합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한 후 현재 동 병원에서 수면의학(sleep medicine)을 세부전공으로 하는 신경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11살, 8살의 두 아들, 늦깎이 공부로 약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부인, 이렇게 네 식구가 테니스, 축구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휩쓰는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며 15년째 Iowa에 동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럼 Dr. 임은 어떤 향기를 지닌 동문인지 만나보시지요.

1. 어떤 계기로 미국행을 택하셨나요?

의대생 시절에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해볼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인턴 시절과 2000년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맞이했던 정부의 의약 분업 강행으로 인한 격동기가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마침 USMLE 시험 step 1, 2도 한국에서 칠 수 있게 되고, 제 동기들중 열 명 이상이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화하여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2. 이 지구에 사는 약 70억 명의 사람 중 인간 임경빈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는 특별히 남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위 분들은 저를 특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할 때 원칙을 지키며 제대로 하는 정도를 견고자 하고, 쓸데없는 것에 열매미가 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생활합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 하며 가늘고 길게 잘 사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범부입니다.

3. 아침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인 만큼 잠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한결같이 수면의 질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잠을 푹 자고 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잠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생리학적으로 잠의 역할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훨씬 많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잠은 동물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필수 행위라고 하겠습니다(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제 답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길입니다" 입니다. 잠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의 중요함에 압도 당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하지 마세요. 특히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취침 시간을 지

키려 노력하면 안 됩니다. 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하고 그것에만 집중하세요. 잠은 일중 리듬의 일부이고 박자를 맞추는 시작은 기상 시간이지, 취침 시간이 아닙니다.

4. 수면 리듬을 맞추는 데에 기상 시간이 취침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잠만큼이나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먹는 이야기 나눠볼까요? 운동을 좋아하시니 먹거리에도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 특이했던 음식, guilty pleasure인 음식이 있다면 한 가지씩 소개해주세요.

먹는 얘기를 하면 아내가 비웃을 겁니다. 결혼 전에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은 라면 밖에 없었고 아직도 스테이크 굽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메뉴를 안 봅니다. 잘 몰라서요. 즐겨 먹는 음식



은 멕시칸, 특이했던 음식은 인도 음식, guilty pleasure는 제가 만든 라면입니다. 그래도 라면 하나는 맛깔나게 끓입니다.

5.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대 다니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특별히 애착이 있던 캠퍼스 내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995년 초가을 이맘때 입니다. '서울 의대 하나 되는 밤'이라는 행사가 94년에 시작되어 2회째를 맞이하였고 그 기념으로 서울의대 단축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마라톤은 1회 였죠. 의대 정문을 출발점으로 이화동 사거리, 원남 사거리, 창경궁 앞, 해화 로타리, 대학로 길을 돌아 의대 도서관 앞을 종점으로 하는 3km 정도의 달리기 였는데 제가 일등을 했습니다. 그 대회 2등부터 5등은 축구반 학생들이었기에, 제가 테니스반의 위상을 높인 셈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테니스 코트 옆에 있던 식당 건물이 생각납니다. '함춘'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당으로 기억하는데, 테니스 대회를 하면 그 곳에서 종종 식사 뒤풀이를 했고(테니스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인사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특별히 애착 가는 장소는 공부와는 상관이 없네요. 하하.

6. Iowa에서만 15년을 사셨는데, Iowa는 어떤 매력을 지닌 곳입니까? 지역 소개 그리고 병원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Iowa 주는 미국 혹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콩, 돼지, 달걀 산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농업을 이끌어 가는 곳입니다. 1980년대에 지방 말단 관리였던 시진핑이 선진농업을 배우러 견학을 온 곳이 아이오와 동부의 Muscatine 이라는 곳 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시진핑은 아이오와를 매우 친근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중미국대사로 보낸 사람이 그 당시에 주지사였고 현재까지도 몇 십년간 아이오와 주지사를 역임한 Terry Branstad입니다. 농업과 중국 이 두 가지 모두 현재의 아이오와 혹은 이곳에서의 저의 삶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와의 가장 큰 매력은 '농부'입니다. 농부의 삶은 굳세고 성실하다

는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환자로 보는 농부들은, 첫 만남에는 무뎌뎌해도 follow up visit에 보면 제가 시킨 것들을 철칙처럼 지켜옵니다. 함께 일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 중 농장에서 자란 분들은 일처리의 완벽함과 성실함에서 누구도 못 따라오는 최고입니다. 아이오와 대학병원은 의사들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orbes가 선정한 최고의 직장에 Google, Costco, Facebook 등과 함께 뜬금없이 UIHC가 올라가 있는데, 와서 일 해보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이오와 대학에는 중국인 학부 유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겠지만 아이오와 대학은 특히 그 대표 주자입니다. 앞서 말한 중국과의 유대감이 한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학생들로부터 파생된 대학 재정의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덕분에 Iowa City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숙사, 체육관, 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넓히고 새

로 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신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코치진의 도움을 받으며 실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7.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귀, 관촬했던 영화 등이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귀띔해주세요.

저는 테니스 관련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은 다들 자서전을 하나쯤은 썼고, 그들의 삶은 제게 여러모로 교훈을 줍니다. 요즘은 두 달 전에 나온 Paul Annacone의 'Coaching for Life'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Paul Annacone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피트 샘프라스와 로저 페더러의 코치였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점을 한 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의 비결에 관한 것인데, 저자가 언급했듯이 그 비결은 어떤 삶에든 해당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를 도울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의대 공부하듯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How can we find and recapture our deepest ambitions? Moreover, how can we shape them so they can become a reality?

1. Understand who you are: Who am I? Where am I going? Who is with me?
 2. Plan what I want to do and how I want to go about doing it.
 3. Believe in yourself to such a degree that you can say easily "I want to get there."
- Moving forward with the above steps is wha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making your dream come true.

8.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로군요. 우리네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Dr. 임 가족의 테니스 사랑이 대단하신데, 테니스 예찬론 펼쳐주세요.

Paul Annacone의 책 제목이 Coaching for Life 이듯이 테니스는 인생과 같습니다. 테니스 한 경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리고 의도한대로 실수 없이 모든 샷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기는 없습니다. 세계 1위 선수도 그런 경기를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상 못한 역경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지요. 가장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테니스라고 많은 이들이 동의

하죠. 저희 아이들은 둘 다 테니스 선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된 연습을 소화해야 하는 것은 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회에 나가보면, 지든 이기든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되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접하도록 해주었고 테니스 선수의 길을 택한 것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름을 떨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쉬운 세상은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하지만 목표를 갖고 꾸준히 연습하고 꿈을 그려나가면 조금씩이나마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애들 연습 상대로 제가 공을 쳐주어야 하는 덕분에 매일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도 좋습니다.

9. 한국 방송은 즐겨 보시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는지요? 자주 방문하시는지요?

아내가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편인데 그럴 때 저는 줄거리 들어가며 중간 중간 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장 보는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줄 때였고 그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대장금'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빠서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보지 못하다가 2007년경에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첫 한국 드라마가 '하얀 거탑' 입니다. 그 후로는 제대로 본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함께 운동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한국 TV는 물론 미국 TV도 예전보다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정기적으로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은 스포츠 입니다. 주요 종목의 결승전 시리즈만 챙겨보아도 일 년이 바쁘게 지납니다.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2월 초 NFL Super Bowl, 5월 롤랑가로스 테니스, 6월 NBA Finals, 7월 월드컵, 8월 US Open, 10월 MLB World series 그리고 가을 내내 Iowa Hawkeyes football 응원하다보면 다른 TV 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없죠. 한국에는 거의 매년 여름에 2-3주 정도씩 방문하고, 친구들과는 그 때 몰아서 만납니다. 다들 한창 바쁜 시기여서인지 한국 내에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지는 못하고 제 덕분에 모인다고들 합니다.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 60대에는 어떤 삶을 그리시는지요?

제 직업에 있어서 지난 2-3년 동안은 꿈을 키우지 않은 정체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어릴 때 가졌던 꿈이 많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제가 가족을 위해 해 줄 것이 더 많아진 시기였고요. 앞으로 3-5년 정도는 가족 최우선을 삶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면 등지를 떠나는 미국 방식을 생각하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시간도 5-10년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일 수도 있지만 요즘 백세 인생이라는데 애들 대학 보내놓고 나서 제 2의 꿈을 찾아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인지 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겠죠.

오늘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 땅에서 피워내는 삶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벽이 다시 열리려는가

- 2017년 가을 서울에서

서윤석(68, 버지니아)

실핏줄 타고 반딧불 몇개가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는 밤
한강의 물결이 벽에 부딪쳐
그 흐름이 멈추어가는 밤
서울의 유명들이
강변에 장승처럼 섰네

우리가 어른이 못되어
살길을 잃어가는 이 도시에
우리가 다시 어른이 되면
이 스산한 밤이 떠나가고
아침해가 다시 들 수 있으려나

우리가 어른이 못되어
유명들이 돌아온 이 도시에
우리의 기도가 벽을 흔들고
회개의 눈물이 벽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강이 다시 열릴 수 있으려나

우리가 어른이 다시 되어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면?

Please Break The Wall

- Autumn in Seoul, 2017

Seo, Younseok

In darkness, several lightning bugs are wandering,
Through the side streets of Seoul.
On the bank along the Han River, the ghosts are walking
And her stream is blocked by the big wall.
Unripe fruits circle in the stream and
The ghosts returned.

Dear friends,
We wish that morning sun rises again.
Let us grow up to be adults,
Let our prayers shake the wall,
Let our prayers break the wall,
Let her stream flow again.

And dear friends,
I would like to ask you now,
When we become adults again and
We work hard and love each other as before,
Can we see the free flow of the river and
Can we see the doves happily return?

지구 별

아해 김태형(63, 아틀란타)

6천 5백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지구
구세계원숭이 간팔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차례로 나뉠 때
2백만 년 전 유연히 나타난 유인원, 먼 우리의 조상

엄청난 지각변동 혹독한 빙하기에도
산림이 사막 되고 바다가 육지 되어도
노아의 홍수 폼페이 재앙 운석의 강타 점철했어도
10만년 지구를 지켜온 Homo sapiens

천동설엔 지동설 창조론엔 진화론, 신성 모독의 대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논쟁
몽골정복 세계대전 월남전쟁 6.25, 피나는 전투
흑사병 천연두 폐결핵 매독, 미생물의 반란
끈질기게 이겨내는 Homo sapiens

천상에선 달님 해님 밤낮으로 지구를 밝히고
지상에선 유목시대 농경시대 산업혁명 사이버 혁명, 순리대로 흐르고
외계의 생명 찾는 보이저호 광활한 우주를 나르는데
우리들 손자 손녀 푸른 꿈 은하수 너머로 나르는데

북녘 땅 한 애송이 인류의 염원 자르려한다
45억년 살아온 지구 별 모든 생명 지우려한다
45억년 살아온 지구 별 모든 역사 지우려한다
칼 세이건이 그렇게 우려했던 핵 장난으로



〈전면에서 계속〉 뜻을 구태여 따지지 않는다.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그 머리통이 비어 있어도 제값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치이다.

영어는 1500년경에는 2백만 명 정도만 쓰고 있었으나 현재는 7억 명 정도로 중국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흔히 쓰이는 언어이며 대부분의 국제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문헌에서 영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가 국제 통용어가 된 배경은 물론 영국과 미국의 국력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섬들과 아프리카의 몇 나라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다는 점 외에 지방마다 다른 말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영어가 안성맞춤이었고 싱가포르를 국어를 영어로 정했는데 이는 다민족의 통합 언어라는 차원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랬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백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75%가 화교들이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살려면 중국어보다 영어 쪽에 붙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판단하에 영어를 택했겠지만 앞으로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필리핀은 3백 년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스페인어는 지명이나 인명에 조금 남아있고 40년밖에 지배를 못한 미국의 영어가 이중국어가 되어 있는 것은 2차 대전 후의 대세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못 산다. 영어를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프로토-인도-유로피안 말 중에 영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점은 국력의 신장 외에 영어는 다른 나라말들을 포용해 왔다는 점이다. 원래 켈트족이 쓰던 원주민어에 게르만계통의 북쪽 언어와 프랑스 말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그리스와 로마 문자가 밀려들었을 때 영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사용했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만큼 자기 나라의 말을 살찌게 하는 방편이다. 현존하는 언어 중에 어휘가 제일 풍부한 것이 영어이다. Allen Walker Read가 계산한 4백만 단어라는 것은 과장된 것 같지만, Webster file에 7십만 개가 올라와 있고 Google에서는 2000년 현재 1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중 60% 이상이 외래어라 한다.

1066년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 공이 영국을 정복한 후 영국의 귀족층이나 지식인들은 프랑스어를 즐겨 썼다. 아직도 예술이나 음식, 법률, 외교용어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말들이 관을 친다. 프랑스어가 알송달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어는 상류층에서, 영어는 하류층에서 쓴다는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미 세력에 밀려왔고 오기로 알면서도 일부러 영어를 안 쓰는 통에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뒤늦게 열등의식을 만회하느라고 외국에 나간 외교관 부인들까지 동원해서 '프랑스어 사랑하기(Francophonie)' 운동을 벌이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그분이 독립심이 강했다는 점이다. 김종서에게 6진을 개척케 하고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 정벌을 시켰으며 장영실로 하여금 중국보다 나은 시계를 발명하라 하였으며 박연의 도움을 받아 궁중에서 우리가 만든 악기로 우리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조선 농업의 기본서인 정초의 〈농사직설〉은 '풍토가 다르면 농사법도 달라야 한다.'로 시작되고, 〈훈민정음〉의 첫 구절은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다.

우리나라는 지배계급의 사대사상으로 수천 년간 한자를 '진서'로 써 오다가 일제강점기의 뼈저린 한글 말소 정책을 겪고 나서야 해방 후 왜말 일소, 한글전용운동이 벌어졌으나 현재 물밀듯이 물려드는 영어의 침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저항이 없다. 아마도 영어를 많이 쓰면 유식해 보인다는 선민의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일본 사람들이 왜 창씨개명을 강요했는지 잘 생각해 보자. 말이 바뀌면 얼도 바뀌기 때문이다.

이광수(李光洙) 씨는 香山光郎(가야마 미쓰로)으로 창씨개명을 했고 박정희(朴正熙) 씨의 일본식 이름은 高木正男(다가끼 마사오)이다. 이름의 빛날 光자와 바를 正자는 건드리지 않았으나 성은 새로 만들었다. 몸은 놔두지만 마음은 바뀌치자는 발상이다. 미국에 와서 우리 친구 신철순은 Charles Shin으로, 김형근은 Henry Kim으로 바꾸었다. 나도 William Lee로 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만두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성을 간 놈'이라는 최고의 모욕적인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정신만 똑바로 박으면 외모야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미국 대사관에 청원서 낼 때 Won Tak Lee로 했더니 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가 William Lee라고 하니 재까닥 답장이 오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쓰는 모양이다.

새로운 말을 만들 때 흔히 쓰는 방식은 서로 다른 말을 끌어다가 하나의 말을 만드는 혼성어(hybrid language)가 있다. 예를 들면 PC방, Y-담, 몰래카메라, 재테크, 진실 게임, 디공포(디스플레이션에 따라 오는 공포), 헬 조선 등인데 다른 말로는 Fusion English(튀기 영어)라고도 해서 소위 콩글리쉬(Konglish)라는 장르의 일부이다. 콩글리쉬 또는 '앵코(Engko-나도 하나 만들어 보았지요.)'도 자연현상이다. 예전에는 일본 사람을 흉내 내는라고 노이로제, 알레르기, 컨닝구, 런닝구, 도롯도, 레페르, 니스, 잠바, 망또 등으로 발음만 틀렸지만 요즘은 발음은 다 잘하는데 그 뜻을 왜곡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전에는 무식해서 탈이었으나 지금은 너무 유식해서 말썽이다. 유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매일같이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말의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나 맛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 금잔미주에 흥청대다 보면 배탈이 나기 십상이고, 걸땀이 들어서 우쭐대다 보면 기둥뿌리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나는 국권을 수호하고--'로 시작된다. 국권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권리?란 비단 영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군사적 침투 같은 가시적 침투에는 예민하지만, 묵시적이고도

은밀한 문화적 침투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선진 문명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 영어를 국어로 써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요즈음은 지구촌이다. 올림픽 주제가도 'We are the one-(우리는 하나)'이다.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프로 축구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감독을 모셔 오고 'dark horse(뜻밖의 준마)'도 한두 명 외국에서 빌려온다. 박찬호나 류현진은 한국인이지만 버젓이 미국 Major League에 소속되어 있다. 국제적 추세니까 한두 명은 봐 주기로 하자. 그러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축구팀이 우승을 했다고 태극기가 올라갈 때 국민들의 생각은 '이건 아닌데--'일 것이다.

엮어치고, 둘러치고-- 도대체 영어를 쓰라는 말이나 말라는 말이나(?) 결론적으로는 선택적으로 쓰라는 말이다. 영어에는 고유명사나 한글로 번역할 수 없는 말, 이미 한국문화에 뿌리내린 말, 한글 번역이 모호하거나 어색한 말, 쓰는 편이 국제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말, 좋은 한글 번역이 있는데도 과시하느라고 쓰는 말, 사대사상을 조장할 수 있는 말, 전염성이 강해 한글을 파괴할 수 있는 말, 영터리 영어, 그리고 음률이 안 맞거나 좌우간 귀에 거슬리는 말 등이 있다.

누군가 나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영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영어에 의한 한글의 오염을 한글이 영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언어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향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병역도 중요하지만 문역(文役)도 필요하다.

농담 골목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직후, 우리 모교에는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영어를 독일어처럼 발음하는 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칠판에다 heart 라고 써 놓고 "헤알트"라고 하기도 했다. (노용면)

직업별 싫은 사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않는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사람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 상팔자'라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
학원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이덕송)

영웅

노영일(69, 시카고)

내가 어렸을 때 학원이라는 청소년 잡지가 있었다. 월간 잡지였었는데 나는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불이나게 책방에 가서 사 보곤 하였다. 제일 먼저 펼쳐 본 것은 만화였다. 깨꾸리군 장다리군, 코주부 삼국지... 일간 신문이 배달되면 제일 먼저 펴서 보는 것도 만화였다. 고바우 영감, 두꺼비, 왈순 아지매... 간단한 도형과 함축성 있는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어린 시절의 벗같이 아스란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대학시절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김유홍 선배님이 생각난다. 서울의대 미술부시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두툼한 의화서적과 함께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미술실 난롯가에 앉아 이야기 할 때나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만화를 그리는 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몇 개의 선을 조합하여 희한하게 그림을 그려내는데 "참 잘그 렸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곤 했다. 마치 미술사가 요술 모자에서 토기도 꺼내고 비둘기도 꺼내고 하듯이 신기하게까지 보였다. 그는 서울대학신문에 어처군 이라는 만화를 연재했는데 나는 그 어느 기성 만화가 보다 잘 그린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일본 망가를 본판 모양에 그림체가 등장하며 그림이 복잡해지고 내용도 지리멸렬하게 장편화되어 만화에 대한 애정이 식어 버렸다. 요즘은 한국 신문이 배달돼도 만화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손주들이 Marvel Universe 쇼를 보러 가자고 조른다. Marvel은 Wolverine, Iron Man, Captain America, Spider-man, Hulk, X-men 등 유명한 만화들을 출판한 미국 유수의 만화회사이다. 만화책



은 물론 요즘은 영화, DVD, 그리고 이제는 실물 쇼까지 하며 돈을 긁어모은다. 나는 만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애들이

조르고 또 옛날 그 나이에 좋아하던 만화에 대한 향수와 요즘 만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하여 따라 나섰다. 쇼는 대단한 인기였다. 2만명을 수용하는 United Center가 입주의 여지도 없이 꽉 찼다. 아이들 보다 어른들이 훨씬 많았다. 이상한 모습을 한 캐릭터들이 나와 서로 치고 박고 때려 눕히는데 나는 누가 정의파고 누가 악당인지 조차 구별하기 힘들었다. 모두들 "영웅"의 승리를 환호하고 열광한다. 영웅이 이 세상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들이 영웅이다. 나는 영웅이라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영웅인줄 알았다. 허기사 요즘에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차에 치지 않게 끌어 내주기 만해도 영웅이 된다. 심지어 불난집에 들어가 강아지 새끼를 구해 내와도 영웅이라 한다. 이문열의 "영웅시대"를 읽어 보면 북한 공산당들은 가정, 우정, 인정을 짓밟고도 당에 충성을 하면 영웅이라 했다. 그는 남한 사회도 꼬집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권력, 재력으로 이성과 지성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일그러진) 영웅이라 했다. 그러나 그도 훗날 소설의 결말을 바꾸어 썼다고 했다. 영웅의 정의와 평가에 혼

란이 온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를 보면 대통령감이라 했다. 대통령 정도 되면 영웅의 반열에 오르는 듯싶었다. 요즘은 대통령이 되자면 선거 기간동안 사생활, 공생활의 사소한 흠집까지도 도마위에 올려놓고 분탕질을 친다. 청문회의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가 몇 명이었던가.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다. 호떡집에 불만 나도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데모를 한다. 영웅이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같이 보인다. 영웅이 사라진 세대이다.

털어도 먼지날 것이 없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악당들을 쳐부수고 이 세상과 우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웅은 만화에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 하는 것이다. 헛개비 영웅이다.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고 따라하려고 한다.

나는 이제 영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다. 나에게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나의 아내,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작은 영웅이 되고 싶을 따름이다.



요즘은 책을 버리는 게 일이다. 전에는 의화서적을 사면 그만큼 지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책을 사 모았는데 세월이 지나고나니 한두 번 들추어 보고 내버려둔 책들이 대부분이다. 서가에 꽂혀 먼지만 쌓일 뿐 마치 애물단지라도 같이 되어 버렸다. 은퇴하고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처치 곤란할 것이 분명하다. 당장 필요한 책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하나 둘씩 버리고 있다. 책을 버리고 난 빈자리에 손주들 사진을 올려놓는다.

서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작은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케이 스트롬이 지은 잔 뉴턴 선장 (John Newton - Angry Sailor) 이란 제목인데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무디 성경학교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내 친구가 시카고에 왔을 때 안내 차 방문한적이 한번 있었다. 호기심에 책을 읽다보니 재미가 있어 단숨에 다 읽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 검색도 하여 다른 관련 자료들도 훑어 보았다.

잔 뉴턴은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중해를 넘나드는 선장이었는데 한번 항해를 나가면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당연히 어린 잔은 어머니의 사랑속에 자랐다. 이웃에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가 살았는데 잔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이 하나 있었다. 그 계집애의 이름은 매리 캐트렛 (Mary Catlett)이었다. 잔은 어린 시절 그 계집애와 함께 놀았고 어머니끼리는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고 농담반진담반으로 이야기 할 정도 였다.

잔이 일곱 살 나던 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아버지는 재혼하여 잔에게는 계모가 생겼는데 잔을 미워하여 기숙사가 달린 학교로 쫓아내 버렸다. 그러나 정이 없는 학교에 취미를 부칠 수가 없어 아버지를 따라 몇번 항해에 나섰다. 항해도중 함께 사선을 넘으며 아버지의 정을 느낀다

열여덟살때 친구를 만나러 항구에

나갔다가 해군에 납치되어 뱃속의 온갖 곳은 일들을 도맡아하는 노예와도 같은 사환생활을 했다. 탈출을 시도하다 체적으로 백대를 얻어맞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때부터 성격이 난폭해지고 누구도 믿지 않았으며 온갖 나쁜 짓은 골라가며 했다. 심지어는 선장을 암살하려는 기도까지 한다.

이런 개망나니 말썽쟁이에게 선장도 두 손을 들고 그를 노예선에 넘겨 버린다.

노예선에서도 포악한 개망나니 같은 잔을 견디다 못해 서아프리카의 노예 상에게 그를 떠맡겨 버린다. 거기서 풍토병이 걸려 사선을 해매는데 노예 상의 흑인 아내는 잔이 치료불능한 병에 걸렸음을 알고 남편이 출타하여 없을 때는 잔을 개 돼지 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하고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하여 잔을 찾아다니던 한 선장에게 발견되어 영국으로 돌아온다.

매리를 찾아갔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 소문난 개망나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

다른 할 일도 없고 실망하여 그는 남들이 꺼리는 노예선의 선장직을 맡아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는 심한 풍랑을 만나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하느님을 찾는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 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귀항도중 그는 뱃속에 있는 성경과 종교서적을 읽고 또 읽고 하며 기독교에 귀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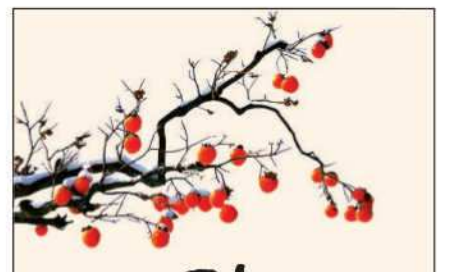
우여곡절 끝에 그때까지 잔만 생각하며 기다리던 매리와 1750년에 결혼한다. 그녀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어느 날 매리의 격려에 힘입어 시골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설교는 매우 감동적 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격시켰다. 그때부터 그는 목사로서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된다.

1779년 그는 드디어 런던에 있는 유명한 교회 (St. Mary Woolnoth)의 담임 목사가 된다. 그의 설교는 늘 감명 깊었으며 그는 여러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기의 일생을 고백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였다. 노예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여 노예매매법 (Slave Trade Act)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1790년 매리가 죽자 애통하며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 (Letters to a Wife)를 출판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성매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82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나를 장차 분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 하리라 아멘

종교적으로는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 청년기의 수난과 멸시는 앞으로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시험이나 훈련일수도 있었다.

그의 설교는 감렬한 체험을 한 사람



감

김병오(69, 버지니아)

한 세상
한 세월도
하고 많은 꿈들도
동그랗게 동그랗게
參禪처럼
매달고
홀로 여물지요

어스름녁에
더 붉어지는
純情입니다

특
떨어지기 전
充滿입니다

텅 빈 하늘을 배경으로 한
출렁이는
諦念일 수도

그보다
그보다는
그제나 저제나
두근거리는
기다림일 뿐입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꿈처럼
떠 있다가
어느 날

重力を 손 놓고
늦은 차림으로
날아오르는
所望입니다

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것이었다. 남의 이야기나 만들어 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어머니의 죽음과 그 슬픔은 온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는 포악해졌고, 술, 도박, 싸움질에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노예들을 사고 팔며 잔인하게 학대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거듭 태어났다. 그때 그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바른길로 인도한것은 바로 어머니를 대신한 매리였다.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에게 한점의 등대불이 되어 준것은 어머니와 매리의 사랑이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남자들은 세계를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그 남자들이 움직인 것은 사실 여자 들이었다.

편집회 초록 - 2017년 10월 9일

장소: Fort Lee Double Tree Hotel
참석자: 이희경, 서윤석, 서량, 이선희, 김정아, 한승신, 황창근 사장
제1회 시계탑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과 상금에 대하여 토의했다. 심사평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어서 2회 수상모집이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2년 정도 지나서 수상자를 결정할 것이다. 지나친 긴 원고 (한수용, 그리스 신화)에 대한 처리방안과 고 정구영 동문의 경력은 너무 길어서 오히려 Website에 올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또 이희경 편집위원의 제안으로 사망하는 동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동문들 사망 후에도 배우자들에게 현재처럼 계속 시계탑을 보내드리기로 확인하였다.
원고교정이 있은후 이어서 이사회가 3시부터 시작했으며 다음 편집회는 2018년 1월 6일에 같은 장소에 열기로하고 편집회를 끝냈다. - 편집인

쓸쓸한 가을이 지나 가고 있었다. 수줍어하는 코스모스가 찬 물가에 피고 낙엽이 들판에 떨어져 뒹구는 계절, 모두가 서둘러 떠나가는 시월이다. 사람들이 모여 강경식의 무덤 앞에서 고별 찬송가를 불렀다. 그들은 그가 누워있는 관 위에 하얀 장미꽃 송이를 하나씩 올려놓았다. 이어서 장의사들이 하관을 마치고 그 위를 흠으로 덮었다. 그의 이름과 번호가 달린 은빛 표시판을 흠 위에 남겼다. 이렇게 흠에서 나서 흠으로 모두 되돌아가는 것이다. 찬바람 때문에 서둘러 조객들은 떠났다. 주위를 맴돌던 그의 영혼도 육신을 남겨놓고 지나가는 구름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석양도 저물고 차츰 세상에 어둠이 물려왔다. 그의 영혼이 가는 곳에서는 뒤돌아다보니 멀리 푸른 바다가 출렁거리고 흰 구름이 덮이던 행성, 지구가 이제는 하나의 작은 공으로 시야에 들어왔다. 알 수 없는 마술의 힘에 의해 그의 영혼의 양 어깨에 날개가 돌아왔다. 그 날개는 빠른 속도로 퍼덕거렸다. 붉은 태양이 불타는 계곡을 피해 멀리 멀리 날아갔다. 수많은 별들이 들어찬 방대한 검은 공간을 한없이 날아갔다. 간혹 소리도 없이 터지는 불빛도 차츰 사라져갔다. 희미하게나마 반짝이는 별들과 그 이웃 별들의 거리는 아주 멀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별들의 집단이 태양계처럼 여러 군데 가끔 눈에 띄었다. 수 많은 꺾려서들과 별의 무덤인 블랙홀도 있었다.

경식의 혼은 은하수 안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4.3광년 떨어진 별 센토리(Centauri)의 행성 프록시마 b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방금 치열한 전투를 치른 흔적이 보였다.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 모르지만 경식이 내린 곳이 높은 고원지대인데 이곳에는 사령탑으로 세워진 우주정거장이 있었다. 황량한 곳이었다. 마침 타원형의 점시모양으로 생긴 우주선이 출발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 속에는 이상하게 생긴 세모난 모자와 비늘처럼 생긴 옷과 꼬리가 달린 우주복을 입고 이륙하려는 외계인들이 타고 있었다. 경식은 반가워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여보세요. 저는 지구에서 온 강경식입니다. 아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영이라는 장가영이라는 여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긴 머리를 하고 슬픔이 가득한 커다란 검은 눈을 가진..."

그의 질문에 인터폰을 통하여 스피커로 우주선에서 회답을 했다.

"우리는 지금 멀리 십만 광년 떨어진 갈리온(Galion)이라는 행성별로 떠나는 중이요. 정보국의 리스트에 의하면 이 센토리게 행성에는 그런 여인이 없답니다. 다만 이 주변 십 광년 떨어진 곳에 알파아라(Alpha Ara)라는 행성별이 있는데 그 곳에 일부 지구인들도 와서 산다고 합니다. 혹시 그곳으로 가서 찾아보시요."

"아 그렇군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주선이 발사대를 떠나간 후 그는 그들이 알려준 대로 행성별 알파아라를 찾아 다시 검은 공간을 날아갔다. 무수한 별들이 시야를 메우는 멀고도 아주 먼 소리도 없는 무한한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가끔 별들의 흔적이 보였다가 살아지기도 했다. 며칠을 걸려 드디어 그는 알파아라에서 내렸다. 그리고 디즈니라는 촌락에 도착했다. 사막이었다. 작은 나무들만 여기저기 서있고 메마른 땅엔 방갈로와 비슷한 작은 집 속에 갈색 얼굴을 한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 얼굴이 서로 닮았다. 남녀의 구별도 없이 한 가지 옷을 입고 있었다. 국민복같은 단추가 달린 제복이었다. 여기엔 아이들도 없고 노인도 안 보였다. 오십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원형으로 이룬 동네 한 가운데 도착하니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를 맞았다. 그는 키가 비교적 작는데 갑옷을 입고 있었다. 왼손잡이인지 칼집이 오른 쪽 허리에 달려있었다. 그들은 비음이 공명하는 고유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수장 오미추아는 경식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시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먼 곳으로 오게 되었소?"

"지구에서 살던 경식, 강경식입니다. 아내를 찾아서 우주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어쩌다 아내를 잃어버렸소, 잘 챙기지 못하고 평소에... 당신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그녀가 마음을 잘 통제하였으면 영구한 순수함에 도달했다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그 곳이 어딜까요, 수장님?"

"아, 그곳은 탄생과 죽음과 노동이 쳇바퀴처럼 도는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곳 이랍니다. 당신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면 알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지요..."

경식이 왔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눈에 눈물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침방울을 튀기며 울부짖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장가영이라는 매리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혹시 오하이오에서 오년 전쯤에 온 이런 여인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모양이다. 딱해 보였는지 수장은 점술사를 불렀다.

몰리아호라는 점술사는 높은 모자를 쓴 키가 칠 적쯤 큰 사람인데 목소리가 우렁찼다.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소리쳤다.

"아밤바사사 마바바사사"하며 하늘에 고했다.

노란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니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왼편에서 바른 편으로 펼쳐졌다. 그는 비도 내리지 않은 날인데 이런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마력의 점술사였다. 그가 기도를 멈추었다. 그리고 그 회답을 수장에게 보고했다. 수장이 경식에게 다가오며 조용히 기쁜 얼굴로 알려주었다.

"당신의 아내가 멀리 알파 오리온(Orion)이라는 행성 별에 살았다고 회답이 왔소이다. 아무래도 그 행성별로 가보시지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식은 그들과 작별하고 알파 오리온을 향하여 세찬 바람을 뚫고 다시 비상했다. 추위와 배고픔도 잊고 오직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렀다. 그가 달려가는 공간에는 빨려 들어갈 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블랙홀도 있고 별들의 무리가 폭발하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이 긴 외로운 그의 여정은 끝날 것이다. 아무리 바람이 시럽게 얼굴을 스치며 길을 막아도 이 쓸쓸한 시간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경식의 영혼은 수백만의 별들과 행성사이로 멀리 멀리 날아갔다. '저 별들 사이로 일어나는 번개 빛을 보아라. 저 잠엄한 우주의 천둥 소리를 들어라. 오! 천사여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려는가? 저 별들의 속삭임, 천사여! 당신이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에 나 이렇게 날아가노니...' 경식은 노래를 불렀다. 멀리 조그맣게 파란 점으로 보이던 목적지 행성 오리온은 붉은 색으로 변하더니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공이

되어 나타났다. 마치 우주에서 귀환하면 보이는 지구와 닮은 이 별은 지구의 하나의 쌍둥이 행성별이었다. 아무도 상상 할 수 없는 이렇게 먼 곳에 쌍둥이 행성별이 있었다니. 그는 감탄했다. 아! 지구와 똑 같다니,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렇다면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구나' 하며 두리번거렸다. 행성 알파 오리온에 와 보니 역시 이곳은 모든것이 지구와 비슷했다. 나무가 자라는 기름진 초원이 있었다. 또 바다와 산이 있었다. 다만 팔십 퍼센트가 바다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렁이는 바다가 연한 녹색이었다. 이곳엔 맹수는 없고, 충성스러운 애완용 개와 고양이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지구에 비교하면 이 천년은 문명이 뒤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물론 자전거도 자동차도 길에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걸어 다니거나 물을 이용하는 뚝단배가 주 교통수단이었다. 어린아이들도 보였다. 돌과 나무로 지은 집들이 동네를 이룬 것도 보였다. 산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마을의 집에는 굴뚝에 연기도 났다. 날씨는 온화했다. 경식은 포장안 된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다. 작년에 죽었다던 인색하기 짝이 없던 유대인 의사 짐 칸(James Kahn)이 밭에서 곡괭이를 들고 채소를 심고 있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육십칠세에 은퇴를 하자마자 한 주일도 안되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었다. 오늘 보니 여기 와서도 그는 일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살던 미스터 벨(Mr. and Mrs. Bell) 부부도 보였다. 잘 알던 스코틀랜드에서 열일곱살때 이민 와서 구십구세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사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것은 도시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닥터 맥브라이드(Dr. McBride)를 만난 것이다. 경식이 반가워서 그에게 다가 갔다.

"닥터 맥브라이드 아니십니까?"

"오 친구여 강경식 의사님, 오랜만 이요. 반갑소 다시 만나서."

"맥, 아니 당신 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여기에 계신가요? 당신은 제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픈 환자를 잘 돌봐주시던 외과의사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쩌서 당신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시고?" 하며 경식이 물었다.

그가 알고 있는 닥터 맥브라이드는 미키마우스처럼 인자하고 온 도시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훌륭한 사람이었다. 환경이 열악한 흑인 어린이들도 여러 명을 자기 집에 데려다 자식처럼 기르고 교육시켰다. 한 사람은 위스콘신 주의 부주지사까지 되었다. 그 부지사가 그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분' 이었다고 말하며 슬퍼했다. 또한 부인인 미세스 맥브라이드는 전 미주장로교회의 리더로 활동했으며 남편과 같이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검소하게 평생을 살았던 분이었다. 불쌍한 이웃을 서로 돌봐야 한다는 그들의 언행이 늘 일치하여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예, 강경식 박사님, 저는 지난 삼십여 년 간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직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의 결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당신은 오늘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식은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예... 아시지요. 저의 아내 가영이를, 저는 오년 전 그녀를 잃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 아름다운 부인 말씀이군요. 불행한 일이군요. 아내를 벌써 잃어버렸다니... 그런 일이라면 저 아래 강 건너 마을로 가 보시지요. 저는 그녀를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강 건너에는 우리 오하이오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들 살고 있으니 혹시 그곳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경식은 일어났다.

"닥터 맥브라이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 분 속히 천국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식은 놀랐다. 평생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 아직도 천국에 못 가고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식은 그가 일러준 대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반대편 언덕에 자리 잡은 여촌에 도착했다. 해초 냄새가 향기롭다. 잔잔한 물결이 출렁거리는 강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물러다니고 있었다. 이곳 여촌에는 여기저기 어시장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해산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마침 어시장 입구에서 방금 들어온 어물바구니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한 여인을 그는 눈여겨보았다.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익었기때문이다. 그리고 영식은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당신은 가영이가 아니요 당신은?" 그랬다. 그녀는 가영이를 아주 많이 닮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가영이는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언니였다. 십여 년 전 서울에서 취직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영의 언니 순영 이었다.

"오! 경식씨 당신이 가영이의 신랑이군요. 나 순영 이아요. 가영이의 언니."

"아! 처형 저는 가영이 남편, 매리야빠 경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매리 엄마와 이곳에 같이 계셨습니까?" 경식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지 십 년도 더 된다고 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경식의 설명을 듣고 순영이는(다음면에 계속)



The Inflammation of Love

Young C. Shin ('59, Maryland)

With him a few dates, and now she is in the heat of love
- calor

Whenever he looks at her her face turns red
- rubor

When he holds her hand, her hope sells up
- tumor

When he eyes another woman her heart aches
- dolor

Without him she cannot do anything
- functio laesa

마지막 구절이 지난 호에 빠져서 다시 올립니다

〈전면에서 계속〉는데 주로 신이 속세 여인들과의 성교제하여 영웅을 낳는 일이다. 한편, 신이 인간을 돕다가 주신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는 일도 있다. 속세 여인들과의 성적 행각이 가장 두드러진 주인공이 제우스여서 헤라의 질투꺼리가 늘게 된다. 이런 경로로 제우스는 많은 영웅들을 배출하게 된다. 간혹 여신이 속세의 남성과 성교제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아프로디테 여신이 서민 안키세스와 동침하여 아이네아스(Aeneas)를 낳게 된다.

올림포스 산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죄로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는 푸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설명된다. 그리고 트레케의 왕 루크르그스(Lycurgus)에게 현세와 내세에 걸친 형벌을 준 디오시소스(Dionysus)의 심한 형벌에 관한 내용이 3세기의 파피로스 조각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의 시인 에우리피데스(Euripides)에 의하면 테베의 왕 펜테우스(Pentheus)가 불경죄로 디오니소스의 형벌을 받게 된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영웅의 시대:

영웅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영웅들과 신들이 같이 존재하는 짧은 시기가 끝나고나서 영웅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온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영웅들이 계속 배출되는데 새로운 신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다. 영웅들은 각지역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숭상된다.

헤라클레스가 영웅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아르고(Argos)에 실존한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도자기나 서사시에 그는 대단히 힘센 장수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가 지니고 있는 무기는 주로 활과 곤봉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도리아 공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도리아족의 남침의 주동 인물이며 그의 아들 힐로스(Hyllus)와 그의 자손들이 미케네, 스피르타 및 아르고 왕국을 다스렸다. 이런 관계로 도리아의 신화가 남쪽의 펠로폰네의 신화와 융합하게 된다.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데우칼리온(Deucalion), 벨레로폰(Bellerophon) 등인데 그들도 모두 비슷한 모험담의 주인공들이다.

아트레우스(Artreus)와 티에스테스(Thyestes):

아르고의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는 쌍둥인데 티에스테스가 아트레우스의 부인 아에로페(Aerope)와 동침한 것 때문에 아트레우스는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토막내어 티에스테스에게 강제로 먹인다. 후에 티에스테스는 자기 딸 펠로피아(Pelopia)와 동침하여 아들 아이기스토스(Aegisthus)를 얻는다. 이 아들이 커서 아트레우스를 살해하고 자기 부친 티에스테스를 미케네의 왕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미넬라우스(Menelaus)가 스파르타로 피신간다.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Tyndareus)는 자기 딸 클리템네스트라(Clytemnestra) 헬레네(Helene)를 이 두 형제에게 각기 결혼시키고 왕위를 미넬라우스에게 물려준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지원으로 미케네의 왕권을 수복하고 처 클리템네스트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오레스테스(Orestes)와 세 딸, 이피게니아(Iphigenia), 엘렉트라(Electra)와 크리소테미스(Chrysothemis)를 낳고 주위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그리스에서 제일 으뜸가는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다가 헬레나가 파리스(Paris)에 의하여 트로이아에 납치되자 전(全)그리스군을 규합하여 총사령관으로 활약한다.

트로이아 전쟁:

이 전쟁은 헬레네의 납치로 그리스와 트로이아 간에 10년 동안 계속된다.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자.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 축하연이 올림포스 산 신전에서 거행된다.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는 에리스(Eris)만 제외한 모든 신들과 반신(半神)들을 초청한다. 에리스는 불화의 여신이다. 결혼식 축하연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존재를 초청 안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에리스는 칼리스티(Kallisti, 가장 예쁜이)라고 적힌 황금사과를 참석한 여신들 속에 던진다. 제각기 제일 예쁘다고 자처하는 헤라,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서로 그 황금사과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크게 설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제우스에게 그 선발하기를 부탁한다. 후유증이 걱정이 된 제우스는 이 선발권을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Paris)에게 일임한다.

그래서 세 여신을 모시고 헤르메스(Hermes)는 이다 산(Mt. Ida)에서 가축을 치고있는 파리스에게 가서 제우스의 분부대로 판정을 부탁하면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신들은 자기의 미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두 속옷까지 벗는다. 모두들 똑같이 아름다워서 판정하기가 어려워지자 여신들이 그에게 뇌물을 제시한다. 헤라는 유럽과 아시아를 걸고, 아테나는 지혜와 전술능력을 제시하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헬레네를 제시한다. 그래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뽑고 헬레네를 얻는다. 그런데 문제는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상태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의 집을 습격하고 헬레네를 유괴한다. 헬레네도 아프로디테의 요술에 걸려 파리스를 보자마자 그에 반해서 스스로 따라나섰다는 설도 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헤라와 아테나는 대단히 실망한다.

몇 차례의 경고에도 파리스는 헬레네를 돌려보내지 않는다.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르고의 왕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아올리스에 집결시키고 심한 풍파를 잠재우기 위하여 자기 딸 이피게니아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고 연합군을 실은 함대를 이끌고 트로이아의 해안에 상륙한다. 공방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의 연합군 안에서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용장 아킬레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아킬레스가 출전을 거부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Patroclus)가 전사하자 그를 보복하기 위하여 트로이아의 프리아모스(Priamos) 왕의 맏아들 헥토르(Hector)를 살해한 후 그의 시체를 마차에 끌어서 성밖을 빙빙 돈다. 프리아모스 왕이 수차 시체를 돌려줄 것을 청탁하나 막무가내이다. 헥토르가 전사한 후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아(Penthesilea)와 에티오피아 왕 멤논(Memnon)이 트로이아 군에 합세하나 여왕과 왕이 모두 아킬레스에게 사살당한다. 아킬레스의 신체의 약점을 알아낸 파리스는 화살을 아킬레스의 발뒷꿈치에 박는다. 이때 아폴로가 파리스로 가장하고 명중하였다는 설이 있다. 전쟁말기에 이르러서 필록테테스(Philoctetes)가 파리스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자 오디세우스의 고안으로 목마의 건조를 시도한다. 목수 에페이우스(Epeius)가 거대한 목마를 건축하여 오디세우스와 피로스(Pyrrus), 그리고 몇명의 군사들이 그 속에 숨는다. 이때 프리아모스 왕녀 카산드라(Cassandra)의 강경한 위험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군이 승선하고 시아에서 사라지자 트로이아 사람들이 그 목마



를 성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승리를 구가하며 폭주하고는 자빠져 자고 있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연다. 야밤중 뱃머리를 돌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성속으로 진입하여 트로이아를 점령하고 불사르고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그리스로 데려간다.

이때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아스(Aeneas)와 부친 안키세스와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도망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그들은 카르타고에 가서 얼마 있다가 결국 이탈리아의 서해안에 상륙하여 토착민과 싸우고 또는 단합하여 로마를 건국할 기초를 마련한다. 승전한 아가멤논은 카산드라를 전리품으로 얻고 미케네로 돌아와서 클리템네스트라(Clytemnestra)의 손에 사살된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귀향길에 풍랑을 만나고 가지각색의 정령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10년의 항해를 마치고 자기의 연적들을 모두 처리하고 여왕 페네로페(Penelope)를 만나고 아들 텔레마코와 함께 영토를 확장한다.

신화개념의 변천:

고대 그리스에서 신화는 일상생활의 중심적 화제였다.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기술한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를 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하였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철학과 역사, 산문형식과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진전함에 따라 초기의 역사적 요소가 소외시 되어갔다. 그러나 당시 시인들과 극작가들은 신화를 개작하면서 재탕하기 시작하여 역사가와 철학자들의 비판거리가 되었다. 어떤 급진적인 철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의 시인들의 이야기는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하였다. 플라토는 그의 저서 '공화국'과 '법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의 부도덕적 술수를 공격하면서 자기자신의 우화적 신화를 만들기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헤시오도스와 당시 신화자들이 신화에 의존한 철학적 접근을 비판하였다.

로마시대에 와서는 그리스와 다른 여러지역에서 전래한 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로마신화를 조성한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바꾸어 비슷한 종류의 신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다가 로마제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스토아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Epicurean philosophy)의 합리주의 발상에 의하여 신화학의 물리적 해석이론이 등장하고 이와 동시에 신화 전통에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화와 종교가 뒤섞이면서 미신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는 일이 어려운 과제로 대두하였다. 실상가상으로 시인과 대본작가들에 의하여 제작된 신화적 연출물의 영향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하였다.

"Hello, ...

그러기를"(II)

- 예전 친구 찾아본 이야기



이홍빈 (63, 대뉴욕)

(...간김에 게서 나두
고대루 날 본채 돌아오는 길
석양에 맘속 참 지나내나 딱했지요)

나이 드니
할수 없구려 여보
늙어놓니 별수없구려 우리
...

이백마일 넘게 돌아(Upstate New York)
원종일 함 찾아가 봤지요
그래도 예전 옛친구

날씨 좋은날 원종일
그래도 생각에
함 찾아봤지요

몇해를 두구
왜 함 보자구
우리 골프 함 치자구 그랬었기를

그새
더 늙기는
냄새는 안 나는가

초인종에
한참 걸려
양손 층계난간 내려오는 늙은이

몇해전두
우리 함 보자구
골프 함 치자구 했었기를

이게 얼마만
오랜만에 어유 참 반가운데
반색않구 그냥 그저 무덤덤한 늙은이

여태 두구 기진해 맥진해
석양엿 눈 이슬 이제서 그렇긴 그렇기요
적적강산 허망해 저만치 맘은 허공에 더 그렇기를

평생두구 쓸고더듬구 주물은 돌이
여생내내 지견채 두구 돌았아 돌이
어찌겠단구 서루 홀대 들 하길

버럭 버럭 소리/경기구 째 싸움
요행 있어주는 여편네
별걱별걱 성질/결에 같이 민망하길

같이 돌이 (입엿거뿐)
침 튀기며 민음 좋더니
통달한듯 달관한듯 대농구 왜 이제 와 빈정대길

속끓는 여편네는
더 더욱
성경에 매달렸기를

소 무심 닭보듯
개 지붕 처다보듯
서로 보듯 눈 안 맞추구 말 안섞구 그러기를
...

늙으니
할수 없구려
늙어놓니 별수없구려

작년두
말은 우리 함 보자구
봄되구 여름오면 보자구 그랬었기를

그새 참 늙기는
이제 넘 냄새두 나는가
타박 옥박 기저권 안 찻는가

여보 우리
늙어놓니 그렇구려
이제와 쉽게 이렇구려

지난 겨울두
말이 우리 함 보자구
봄되구 여름이면 보자구 했었기를

... 그럼
(잘 쟁기구) 잘 있기요
이제 나 아마 더는 안오기요
다시 안 오기요 그만 오기요.

제1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 상 제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에서 자랑스런 Mentor 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 미국내에서 전문인으로서 자리를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미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동문 mentor는 미국내에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성공 뿐 아니라 본인 및 가족들의 미국내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Mentoring은 많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동문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깊은 애정없이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닌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에게 소중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흔쾌히 제공하셔서 동문들의 미국내 진로개척과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자랑스런 Mentor를 찾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Mentor 상 후보에의 자격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 아니신 분도 추천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셔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문(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전문인으로서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상담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동문(들)을 학술 및 전문 커뮤니티에 추천하거나 소개
- 동문(들)에게 자신의 학술 연구 활동에 합류하거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의료인으로서 성장에 도움을 제공
- 동문(들)에게 행정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
- 동문(들)에게 귀감이 됨
- Mentoring 에 대한지속적인 헌신

추천 방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 회원인 주추천자 (1인) 및 재청자 (1인) 의 추천서 (소정양식)를 동창회 사무실에 이메일 (SNUCMAA@yahoo.com) 로 제출

추천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심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상 심사위원회

발표 및 수여: 2018년 6월 23일 제35차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제1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 상” 후보 추천 공고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서는 “자랑스런 Mentor 상” 을 선정하고자 하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대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들의 미주 진로 개척에 기여한 사람 (서울의대 동문으로 제한되지 않음; 후보자의 조건은 기사 참조 바람)

선정인원: 매년 1인

후보추천방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아래 추천 양식을 작성하고 한 페이지 분량의 추천사유를 첨부하여 SNUCMAA@yahoo.com로 제출

추천 접수 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발표 및 수여: 2018년 6월 23일 제35차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GP Chair 이선규(89)

제1회 “자랑스런 Mentor 상” 후보 추천 양식

후보자

이름: _____ 졸업연도: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추천자

이름: _____ 졸업연도: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재청자

이름: _____ 졸업연도: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 추천 사유: 한 페이지 분량으로 첨부 할것

2017~2018 한승신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 1951 이상하
-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 1956 김신형 김윤태 서상철 박상기 도상탁 주창준
- 1957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이동성 임종식 임종원 정진복
- 1958 김시한 김수산 김윤범 김학륜 분석면 박호연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류치열 이만택 이동목 이상설 이운순 이종국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재룡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용덕 김한섭 방덕환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임낙중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 1960 권기홍 김영환 박춘명 염극용 오신중 이경화 이상일 이종석 임필순 이덕승 조재동 한성수
- 1961 곽동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계훈택 박승균 박준환 안창현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철용 조은순 서휘열 최공창 최성덕 최용성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호균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진수 송영두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항순
- 1963 고영희 김갑중 김계운 김명준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현철 김현학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선종철 송용덕 이기환 이범세 이병준 이송현 이흥빈 왕규현 윤영욱 윤진수 이종두 장세곤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권정덕 김용두 김진우 김태환 오유섭 오수환 양운택 유관현 유창남 이종오 이흥표 신두식 윤흥기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구경희 박수안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황규정 홍수웅
- 1966 김경세 김종원 김진수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조관상 조규웅 조의열 최순채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용 유진일 이근용 이민우 이진수 이소희 이정화 이태안 한영수
- 1968 고남규 노영일 김희주 서윤석 이상훈 임공세 주광국 차재철 홍광신
- 1969 도상철 박수웅 서 랑 송용재 신영찬 오선웅 육순재 이흥호 임웅규 정한규 최종진
- 1970 박찬진 박홍식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유식 김창규 김효순 서정자 오상현 장 철 정인용 조세진 하준영 황동하 홍성진

- 1972 김재석 석창호 이기진 인영걸 정균희
- 1973 고용규 나두섭 송정자 임준형 조재종
- 1974 권철수 유영준
- 1975 박종희 박인영 김원정 김자역
- 1979 이승호
- 1984 서귀숙
- 2000 강현석
- 2009 송경민 양현식
- 1977 강준희 박정식
- 1982 차민영
- 1991 강민종
- 2002 최태웅
- 2011 김민형

— 는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35th CONVENTION DONATION

- 김윤범(58) 100 분석면(58) 250 신상균(58) 225 최창송(58) 1000 권기홍(60) 500
- 한성수(60) 50 박승균(61) 150 김석식(62) 75 송영두(62) 200 권정덕(64) 500
- 이흥표(64) 200 허선행(64) 500 이명희(66) 1000 서윤석(68) 500 차재철(68) 100
- 김유식(71) 100 박종희(75) 175 한승신(76) 5000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200 이종석(60) 75 이용길(62) 200 김태형(63) 75 김진우(64) 175
- 이흥표(64) 2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박인영(75) 200 서귀숙(84) 100
- 최태웅(02) 100 양현식(09) 100 김민형(11) 100

CHARITY FUND

- 최창송(58) 2000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25
- 차민영(82) 100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100 김학륜(58) 100 김은섭(59) 200 권기홍(60) 500 이덕승(60) 200
- 한성수(60) 100 한기현(63) 125 이흥표(64) 200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 서윤석(68) 500 김효순(71) 125 서정자(71) 375 김자역(75) 500

GENERAL DONATION

- 노용면(55) 200 서상철(56) 75 임종식(57) 500 김윤범(58) 100 이경화(60) 75
- 정의철(61) 500 김명준(63) 75 김현철(63) 75 박세록(63) 50 이흥빈(63) 200
- 김태환(64) 50 신두식(64) 100 양운택(64) 100 이흥표(64) 275 최준희(64) 175
- 임현재(65) 50 정길화(65) 100 강병식(67) 75 김성철(67) 75 이상훈(68) 75
- 차재철(68) 75 최준영(68) 325 박수웅(69) 150 정한규(69) 50 박찬진(70) 75
- 김유식(71) 75 정균희(72) 100 나두섭(73) 200 김원정(75) 200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인 Mrs. 정의철(61) \$500, 최경은 (Mrs. 최준영, 68)께서 \$325을 General Fund로 보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건설 회기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동창회 \$3,000, 서울대학병원(광고) \$1,000을 지원하였습니다.